

南

漢

江

남한강

유역의

민속문화

4. 남한강 유역의 강마을 민속현장조사



## 4. 남한강 유역 강마을의 민속현장조사

### 1)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의 민속

#### ■ 마을 개관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는 남한강 유역에 있는 마을로 원래 '흔바우'라고 불렸으며 '흔바우나루'가 있다. 강 건너편은 강천면 굴암리이며 양쪽 마을 사람들이 나룻배로 내왕하였다. 혼암리 사람들은 이 배를 이용하여 섬에 땅콩 농사를 지으러 넘어갔고, 굴암리 사람들은 혼암리에 불일이 있을 때 나룻배를 이용하였다.

혼암리는 2개 부락으로 강 중간의 아랫말과 위쪽 옷말로 되어 있다. 가구 수는 과거에 65~67호 정도였는데 현재는 60여 호이다. 1972년 장마 때 집이 여러 채 떠내려가서 흔바우 옷말은 현재 50호 정도가 살고 있다.

생업은 논농사와 밭농사이다. 예전에는 강 건너에 가서 땅콩농사를 많이 지었으나 지금은 짓지 않는다. 나룻배가 없어진 뒤 굴암리에 가는 일은 별로 없다.

이 마을에서 장은 여주장을 보았는



혼암리 나루터

데 장에는 걸어서 갔고 때로는 동네 배로 많은 짐을 싣고 가서 장을 보기도 하였다.

흔바우나루 근처 언덕 왼쪽에는 오래된 회나무(회화나무)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너른 밭이 있는데 이곳에서 거줄다리를 한다. 나무가 번창하던 시절 나루터 입구 오른쪽에는 예전에 술집(주막)이 두 집 있었는데 6·25 이후에 없어졌다.

예로부터 흔암리 두레는 점동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그런 까닭에 쌍룡거줄다리와 같은 거대한 민속놀이의 전승이 가능했다고 본다. 흔바우마을 사람들은 농악을 잘하고 힘 좋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체육대회에도 이어져 점동면에서 가장 강한 곳이 흔바우마을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 ■ 나루와 생활

흔암나루는 '흔바우나루' 라고도 불렀다. 나루 건너편은 강천면 굴암리이며 나룻배로 왕래하였다. 흔암리에는 나룻배와 작은 배가 각각 한 척이 있었다.

이 나루에는 수운을 이용해 짐배인 황포돛배가 다녔는데 이 돛단배에는 쌀을 100여 가마 실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쌀은 안성·평택에서 마차에 싣고 이 마을 고살래길로 와서 배에 싣고 서울로 내려가서 팔았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에서 오는 배는 뗏목을 싣고 지나간다. 뗏목이 지나갈 때는 아이들이 짓궂게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 강 근처 산 잔등이로 올라가면 뗏목이 오는 것이 보이는데, 미리 큰 돌을 끌고 올라가서 뗏목이 보이면 큰 돌을 내려 굴린다. 뗏목이 강 가운데로 오다가 오후에 강 쪽에 대기 좋게 붙는데 이때 아이들이 돌을 굴러 내린다. 그러면 뗏군이 화가 나서 대들기도 한다. 이런 장난은 동네 중늬은이들이 가르쳐 주었다. 또한 아이들이 뗏군들을 보고 “돼지우리간이나 저라.”고 놀려대면 뗏군들이 “너 이놈의 새끼들! 돼지우리 저 놓고 네 에미 아버지나 쳐넣어라.” 하고 화를 내었다.

뗏목은 굵고 가는 나무를 칩닝쿨로 엮어서 만들었고, 이는 건축과 화목(땔감)으로 사용하였다.

나루 근처 편편한 언덕배기에는 술집이 두 집 있었는데 낮에 내려가는 배에서 술을 달라고 하면 주막집에서 술을 가지고 가서 팔았다. 뗏목이



흔암나루 부근의 옛날 주막집이 있던 곳

내려가고 짐을 싣는 날에는 보통 소를 한 마리씩 잡았는데 이는 장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만큼 혼바우나루가 번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쉬(수령)에 빠지면 여주 혼암리가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전에 혼바우나루는 유명하였고, 당시 “여주 혼암리를 모르면 건달축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나루터는 1950년대 후반에 없어졌고, 짐배는 해방 전후까지 다녔다.

## ■ 민간신앙

- 뱃고사 : 정월 보름날 아침이나 낮에 강에서 간소하게 지낸다. 창호지를 깔고 북어와 술만을 놓고 지내며, 소지는 한 장만을 올린다.
- 어부숨 : 어부숨은 정월 보름날의 세시풍속으로 새벽에 깨끗한 새 종구리(조그마한 바가지)에 새로 지은 밥을 식구 수대로 술갈로 떠서 강에 버리는 일종의 액막이이다. 이러한 신앙은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에 용신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한 해의 액을 강에 띄워 보낸다는 의미가 있다.
- 서낭고사 :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서낭당에 가서 고사를 지낸다. 고사를 지낸 뒤에는 떡시루를 엮어 놓고 그 위에 북어 한 마리와 1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는다. 그러면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라 아이들이 미리 알고 지키고 있다가 떡을 먹고 돈도 주으려고 서낭당에 가기도 하였다.

## ■ 세시풍속

### 1월

#### [설날]

설날 아침에는 차례를 지낸 뒤 세배를 하고 차례음식으로 아침식사를 한 뒤 산소에 성묘를 간다.

- 차례·차례상 : 설날 차례는 종가집에 모두 모여서 한다. 설날 차례상에는 보통 흰밥 대신 떡국을 올리는데 조상 숫자대로 놓는다. 차례음식은 제사 때와 비슷하나 흰밥 대신 떡국을 올리고, 기제사 때와 달리 조기는 올리지 않는 점이 다르다.

차례상차림을 보면, 배·사과·대추·밤·감 등 과일과 산자, 숙주·도라지·고사리(또는 싱검초) 등 나물류, 전·적으로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적, 녹두빈대떡, 갈랍(동그랑땡), 북어포, 탕(1탕 또는 3탕), 편(녹두편, 인절미 등), 떡국, 술 등으로 되어 있다. 갈랍은 고기나 버섯, 숙주나물 등을 다져서 동글납작하게 만든 것이다. 탕은 무·두부·다시마 등을 넣고 끓이며 다시마 위에 소고기를 올려놓는다. 그리고 떡국 속에는 만두를 넣는다. 술은 예전에는 직접 담가서 용수를 박아 거른 맑은 술을 사용했으나

요즘은 청주를 사다가 쓴다.

- 성묘 : 성묘는 현재 설과 추석에 하나 예전에는 주로 설에 많이 했다. 성묘 때에는 간단히 주·과·포를 가지고 간다.
- 세배 : 예전에는 일가친척과 이웃 어른들께 세배를 다녔으나 요즘은 거의 세배를 다니는 사람이 없다. 과거 여자들은 보름 안쪽에는 세배를 다니지 않았다.

#### [정초]

• 걸립·고사반 : 정초 보름 사이에 동네사람들이 농악대를 꾸며 집집마다 다니면서 농악을 쳐주고 그 집의 해운을 좋게 해달라고 빌어 주는 것을 '걸립'이라 한다. 농악대가 각 집을 방문하면 주인집에서는 마당이나 대청에 쌀 한 말을 부어 놓은 말이나 그릇을 놓고 그 위에 실타래, 손가락, 청수(정한수), 북어 등을 올려놓는데 이를 '고사반'이라 한다. 이렇게 고사반을 올리면 농악대가 대청, 부엌, 장독대, 우물, 뒤꼍 등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고사반을 쳐주고 마당에서 한바탕 신명나게 논다.

이와 같이 여러 집을 돌면 쌀이 여러 가마니씩 모이는데 이 쌀은 동넛돈으로 이장의 잡비와 동네 행사 등에 쓴다. 이처럼 정월 한 달은 걸립패들이 크게 노는데 이들은 다른 동네에 가서 놀기도 한다.

흔암리는 다른 마을에 비해 잽이들이 많아 잘 놀았다. 흔암리 두레는 점동면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강하고 힘 좋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다.

- 용날 : 용날 칼질하면 안 좋다고 한다.

#### [열나흔날]

• 더위팔기 : 정월 열나흔날 아침에 친구에게 "아무개야!" 하고 부를 때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가라."고 하여 더위팔기를 한다.

• 벋섬만두 : 정월 열나흔날 아침에는 벋섬만두로 만둣국을 끓여 먹는다. '벋섬만두'란 만두를 크게 빚은 것으로 만두 속에는 김치, 두부, 숙주, 당면, 고기(돼지고기) 등을 다져 넣는다. 벋섬만두는 돼지와 소에게도 준다. 이는 일 잘하고 풍년들게 해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

• 오곡밥·아홉 번 먹고 아홉 번 일하기 : 열나흔날 저녁 일찌감치 조·기장·쌀·콩·팥 등 오곡으로 밥을 해서 먹는다. 이날 밥을 아홉 번 먹으면 좋다고 하고 또 나무 아홉 짐을 해야 좋다고 한다. 예전에는 저녁에 남의 집 밥을 훔쳐다가 나물비빔밥을 해서 먹었다.

- 용알뜨기 : 열나흔날 깊은 밤에 동네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데 이를 '용알뜨기'

라 한다. 용알뜨기를 한 뒤에는 먼저 왔다갔다 표시로 포아리(파리)를 물에 띄우고 온다. 어떤 이는 용알뜨기를 한 뒤 일할 때마다 들에 소나기가 와서 나중에는 물을 떠 오지 않았다고 한다.

- 잠안자기 : 열나흔날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하여 일찍 못 자게 하였다.
- 널뛰기 : 열나흔날 널을 많이 뛰었는데 남녀 모두 다 뛰었다.

[대보름]

- 어부슴 : 정월 보름날 새벽에 깨끗한 새 종구리(종구라기 : 조그마한 바가지)에 새로 한 밥을 식구 수대로 손갈로 떠서 강에 버리는데 이를 어부슴이라 한다.
- 아침밥 : 보름날 아침에는 흰밥에 미역국, 나물, 김 등으로 아침식사를 한다. 이날 아침에 김치는 먹지 않는데 김치를 먹으면 살빼기(여름에 나는 피부병의 하나로 가렵고 따끔거림.)가 인다고 한다. 이것은 김치의 고춧가루가 붉은 색이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 쥐불놀이 : 보름날 짚으로 새끼를 꼬아 돌돌 말아서 불을 붙여 논두렁을 태우는 것을 쥐불놀이이라 한다. 해방 뒤에는 강통에 나뭇개비를 넣고 불을 붙여 돌렸다.
- 망우리 : 보름날 안산 잔등에 달맞이를 하는 것을 망우리라고 한다. 짚을 아이 나이 수대로 새끼로 묶어 달이 뜨면 불을 붙이고 절을 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빈다.
- 흙전 : 대보름 무렵 달밤에 혼암리 아랫마을과 웃말이 편을 갈라 서로 흙을 던지며 싸우는 놀이이다. 주로 스므 살 밑 청소년들이 놀았다. 놀이방법은, 양쪽 마을에서 중간지점을 정해 놓고 양편에서 서로 흙을 던지며 싸운다. 흙덩이를 맞으면 아파도 크게 심하게 다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중부지방에서 대보름에 행했던 석전, 즉 돌싸움과 같은 놀이인데 돌 대신에 흙으로 던져 돌로 인한 심한 부상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

- 척사대회 : 예전에는 정월 보름에 척사대회를 했었으나 지금은 사람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젊은 층이 거의 없어 하지 않는다. 척사대회를 안한 지 10여 년 된다.

[달귀귀신날] (1월 16일)

- 신발감추기 : 정월 16일을 '달귀귀신날' 이라 하여 이날 밤에는 신발을 들여놓는다. 밤에 놀다 들어와서 신발을 방에 들여놓는데 이는 달귀귀신이 신발을 신어 간다고 하기 때문이다.
- 달귀귀신쫓기 : 달귀귀신날 목화씨·머리털·마른고추를 태워 귀신을 쫓는다. 이것들을 태우면 냄새가 독해 귀신이 도망간다고 한다. 만일 심심하게 태우면 귀신이 돌

아온다고도 한다.

#### [말날]

• 장담그기 : 정월 말날에는 장을 담근다. 장독 안에는 숯과 대추, 고추 등을 띄워 넣는데 고추는 안 넣기도 한다. 장을 담글 때는 왼새끼를 꼬아 장항아리에 감아 놓고, 창호지로 버선 모양을 만들어서 장독에 거꾸로 붙인다.

#### 1월

남자아이들은 자치기, 여자들은 종지놀이, 옷놀이는 남녀 모두 하였는데 특히 이 마을에서는 보리옷놀이가 특징적이다.

#### 2월

##### [초하룻날]

• 닭장문 늦게 열기 : 2월 초하룻날에는 닭장문을 일찍 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 나이떡 : 2월 초하룻날에는 나이떡을 해먹고, 이날 남의 집에 일찍 가지 않는다. 나이떡은 쌀을 손갈로 식구들 나이 수대로 떠서 송편을 해먹는다. 이를 '나이송편'이라 하는데 나이송편은 조그맣게 만들며 속에는 주로 팥을 넣는다.

##### [좀생이날]

• 좀생이보기 : 2월 초엿새를 좀생이날이라 하는데 좀생이벌이 내 머리 위에 오면 햇곡을 먹는다고 한다. 즉 농사가 잘 된다는 뜻이다.

##### [월내]

• 장담그기 : 정월 말날과 같이 2월에도 장을 담근다.

#### 3월

##### [한식]

• 묘제·개토 : 한식은 2월에 들기도 하고 3월에 들기도 한다. 한식에는 산에 가서 묘제를 지낸다. 지금은 묘제를 지내지 않고 개토(改土)만 한다.

##### [월내]

• 뱃놀이 : 혼암마을에서는 봄에 모내기 전에 마을사람들이 모여 뱃놀이를 하였다.

마을에는 3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나룻배가 있었는데 이 배를 내어 술과 쌀, 반찬, 생선 등 음식을 준비하여 배에 싣고 강천, 자산, 합수머리까지 올라가서 배에서 음식을 해먹고 하루종일 놀다가 내려왔다. 뱃놀이는 남녀가 따로 따로 놀았다.

- 천렵 : 천렵은 어른들이 뱃놀이를 할 때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하였다. 쌀 두 되 정도로 걷고 된장, 고추장 등을 준비해서 산속 냇가에서 음식을 해먹고 놀다 온다. '아홉살이' 라는 곳에 가재가 많았는데 그곳에서 가재를 잡아 산속 냇가에서 준비해온 재료들을 넣어 끓여 먹고 놀다가 온다. 천렵은 주로 3~4월에 하였다.
- 해점치기 : 해가 빨갱게 보이면 가물고, 하얗게 생기면 '물먹는다' 고 한다. 이는 해를 보고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것으로 주로 3~4월에 하였다.

#### 4월

[초파일]

- 절가기 : 초파일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절에 가는데 신륵사에 가는 사람도 있다. 이날 절에서는 법당에 올린 절편이나 인절미를 신도들의 점심 비빔밥에 한 쪽씩 놓아 주기도 한다.

#### 5월

[단오]

단오에는 그네뛰기, 창포에 머리 감기, 약쑥 뜯기, 대추나무 잎물로 세수하기 등의 풍속이 있다. 이날 씨름은 하지 않았고, 떡도 해먹지 않았다.

- 그네 : 단오에 중간마을 참나무에 그네를 매고 남녀 모두 그네를 뛰었다. 그네는 남녀 모두 뛰었다. 그넷줄은 젊은이들이 짚을 엮어서 동아줄을 틀어 만들었으며 단옷날 매었다. 줄은 단오가 지나도 끊지 않고 그대로 둔다. 그러나 그네를 뛰다가 사고가 나면 줄을 없애 버린다.
- 창포물에 머리감기 : 단옷날 창포를 베어다가 삶아서 그 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좋아진다. 혼암리에는 창포가 드문 편이라 그리 많이 하지는 않았다.
- 대추나무 잎물에 세수하기 : 단옷날 대추나무잎을 훑어다가 저녁에 물에 띄워 놓았다가 건져낸 후 그 물을 떠서 세수한다. 그러면 얼굴이 고와진다고 한다.
- 약쑥뜯기 : 단오에 약쑥을 뽑아다가 잘라서 짚으로 엮어 응달에 걸어 놓는다. 단오의 약쑥은 여자들의 냉증에 좋다고 한다.

[월내]

과거 밀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5월에 밀 수확을 하여 장독대에 있는 터주항아리에 넣고 짚주저리를 씌워 놓았다.

## 6월

6월에는 특정한 행사가 없다.

## 7월

7월에는 칠석과 백중 명절이 있는데 칠석에는 특정한 행사가 없다.

### [백중]

- 백중장 : 백중날은 머슴날이다. 이날은 백중장이 크게 선다. 머슴은 백중 전에 새끼를 꼬아 멍석을 만들어 놓아야 하며, 백중날은 꼴도 일찍 베어 놓고 나간다. 주인은 백중에 머슴에게 증의적삼 한 벌을 해주고 노잣돈을 준다. 머슴은 이 돈을 가지고 여주장에 가서 술 먹고 노름하고 재미나게 하루를 놀다가 온다. 여주장은 혼암리에서 10 km 정도로 걸어서 2시간이 걸린다.
- 씨름 : 백중장에서는 씨름과 난장판이 유명하였다.

## 8월

### [추석]

추석에는 차례상에 햅쌀로 지은 밥이나 송편을 만들어 올리고 성묘를 간다. 여주나 이천과 달리 거북놀이는 하지 않는다.

- 차례 : 추석에는 미리 잘 익은 벼를 훑어다가 방아를 찌서 햅쌀을 준비한다. 이 햅쌀로 밥과 송편을 만들어 차례를 지낸다. 차례상에는 송편만 올리거나 송편과 메를 같이 올리기도 한다. 송편은 작고 가름하게 만들며 송편속으로는 팔과 콩 등을 넣는다.
- 성묘 : 예전에는 추석 성묘는 거의 안 갔으나 요즘은 추서에 성묘를 많이 한다.

## 9월

### [중양·중구]

- 구절초 뜯기 : 음력 9월 9일 중양은 '구절초 뜯는 날'이다. 구절초는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아홉 살 먹은 아이가 '아홉살이' 아홉 고개를 넘어가서 구절초 아홉 묶음을 해오면 약에 좋다고 한다. 이런 까닭에 서울에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혼암리 '아홉살 이고개' 까지 구절초를 뜯으러 오는 일이 있었다. 구절초는 여자들의 냉증에 효험이 있

는 약초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못 낳는 부인네가 구절초를 뜯어다 먹고 아들을 낳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 10월

• 고사 : 10월 상달에는 농사를 모두 갈무리한 뒤 낱을 받아 고사를 지낸다. 고사는 시루떡을 시루 째 찌서 그 안에 정한수(정화수)를 떠놓고 대청마루에 놓는다. 특별히 빌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놓아둔다. 부엌과 장독대, 소외양간, 광 등에는 떡을 한 쪽씩 떼어 접시에 놓아둔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 시루떡을 잘라서 집집마다 돌린다. 고사떡은 많이 해서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10월은 날씨가 추울 때라 집집마다 떡을 돌리느라고 손이 시려 고생한 적도 있다.

### 11월

[동지]

• 동지팥죽 : 동짓날에는 팥죽을 끓여 먹는다. 흔히 애동지에는 팥죽을 끓여 먹지 않는데 지금은 가리지 않는다.

[월내]

• 연말총회 : 양력 12월 하순에 이장이 동네사람들에게 연말결산보고를 한다. 보고가 끝나면 점심을 장만해서 동네사람들이 함께 먹는다. 이장의 임기는 2년인데 이장의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이장을 선출한다.

[윤달]

• 절돌기 : 윤달 든 해 절 세 군데를 다니면 좋다고 한다.

### ■ 민속놀이

#### • 쌍룡거줄다리기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에서 전승되는 쌍룡거줄다리기는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민속놀이이다.

쌍룡거줄다리기의 명칭은 원래 '거줄다리기'였으며,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가면서 쌍룡거줄다리기로 이름이 바뀌었다.

줄다리기는 3년마다 다렸으며, 놀이의 목적은 당시 물길로 다니므로 수운(水運)의 안

녕을 위한 것이다. 즉, 일종의 물고사를 지내는 것과 같다고 한다.

거줄다리기의 역사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오랜 옛날부터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줄다리기를 하는 시기는 정월 보름날 밤, 저녁 식사 후에 시작하였는데, 현재는 낮에 한다.

줄의 제작은 정월 대보름 사흘 전, 즉 음력 1월 12일부터 시작하여 보름날까지 한다. 줄의 재료인 짚은 각 집에서 추렴하며, 줄은 혼암리 아랫



혼암리 쌍룡거 줄다리기 장소

말, 옷말에서 각각 하나씩 만드는데 옷말은 암줄, 아랫말은 숫줄을 만든다.

줄을 만들 때는 두레패들이 크게 놀았는데 정월 초이튿날부터 마을을 다니며 놀았다. 이때 여자들은 음식 준비를 하는데, 줄다리를 할 때는 돼지를 잡는다.

줄 만드는 방법은, 나무를 삼각형 형태로 매달아 세우고 가로목을 질러 놓고 새끼로 묶어 양쪽에 세워 놓는다. 밑에서는 사람이 꼬는 대로 잡아당긴다. 한 사람이 짚을 주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꼬고 한쪽에서는 잡아당긴다.

완성된 줄의 크기는 양쪽을 모두 합하면 100m~150m에 이르고, 줄메는 사람이 360명 정도 소요되는 큰 줄이다. 줄을 다 끈 뒤에는 정월 보름날 아랫마을 해나무 밭에 모인다.

먼저 정월 보름날 아침에 줄고사를 지낸다. 가장 먼저 고산래고개에 있는 서낭당(서낭목은 아름드리 향나무였는데 지금은 없음. 처리 사람이 서낭목을 벤 뒤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함.)에서 서낭고사를 드린다. 그런 다음 산등을 타고 내려와 동네 우물(당시 60호 이상 사람들이 모두 이 물을 먹었음.)에서 우물고사를 지낸다. 이 우물고사는 동네 평안과 물이 잘 나오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고사를 지낸다. 제물은 북어와 막걸리이며 소임(1년 동안 동네일을 하는 사람.)이 준비한다. 고사는 전반적으로 북어와 막걸리만 가지고 간단히 지낸다.

줄다리는 강가의 언덕의 회나무가 있는 널찍한 밭에서 다렸다. 줄다리를 하기 전에 양쪽에서 줄을 메고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어르는데 중간에 쉬어가면서 계속한다. 이때 농악이 함께 어울려 논다. 암줄의 용머리가 도망가면 숫줄이 쫓아가고 하면서 서로 어르고 놀다가 암줄 용머리 속에 숫줄을 넣고 가운데 막대기를 쫓는다. 그런 뒤 소임이 “하나, 둘, 셋!” 하는 구령에 따라 줄을 당긴다. 여자들은 남자 편에 가서 못

당기게 떼어놓는 등 휘방을 한다.

줄다리기의 편제는 암줄과 수줄로 나뉘며 처리, 삼교리, 떡골리, 굴암리, 강천리 등 4·5개 부락이 참여하였다. 암줄은 여자와 20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수줄은 20세 이상의 바깥노인들이 당겼다.

승부는 3번 줄을 당겨 정하였는데 항상 암줄이 이겼다. 줄다리가 끝나면 여자들은 만세를 부르고 즐거워하였다. 줄을 당길 때도 농악을 치고 논다.

흔암리 거줄다리기는 1987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후 시에서 500만원씩 보조금이 나왔다. 이후 거줄다리기의 전승이 점동면 흔암리 마을의 여건상 지속하기가 어려워 여주군의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전승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여주대학에서 한 번 한 이후 전승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따라서 점동면에서 여주군으로 넘기려다가 현재는 줄의 규모를 줄여서 흔암리에서 전승하고 있으나 줄을 뿔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 전승이 어려운 실정이라 한다.

현재 거줄다리기 줄은 소규모로 만들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정월 대보름이 되면 그 줄을 다시 꺼내어 흔암리 마을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함께 줄다리를 하고 있다. 경비는 여주문화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전승이 어려운 상태이다.

#### • 종지놀이

여러 명의 부인네들이 둘러앉아서 앞치마 속으로 종지를 안 보이게 감추면서 돌리면서 술래가 알아맞히는 놀이이다. 종지 가진 것을 들킨 사람은 벌칙으로 노래를 한다. 종지돌리기를 할 때는 노래를 부르면서 돌린다. 이 놀이는 주로 정월달에 여자들이 모여서 놀았다.

#### • 보리웃놀이

‘보리웃’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법식도 없이 아무렇게나 던져서 노는 웃을 낮잡아 이르는 말”을 일컫는다. 대개 웃을 못 노는 여자나 어린아이의 웃을 보리웃이라 업신 여기는데, 흔히 웃가락 4개를 다 높이 던져서 주로 걸이나 웃이 잘 나는 웃을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흔암리의 보리웃놀이는 일반적인 웃놀이와는 다른 색다른 방법의 놀이로 변형된 웃놀이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 놀이는 주로 정월에 놓았다.

놀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 웃놀이와 마찬가지로 웃가락 4개를 던진다. 만일 ‘도’가 나오면 엮어진 나머지 웃가락 3개 중 하나를 짚어 젖혀진 1개의 웃가락을 쳐



제보자 황기분

서 넘겨 엮어진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옷은 '모'의 형태가 된다. '개'가 나오면 나머지 엮어진 옷가락 2개로 젖혀진 2개를 양쪽에서 쳐서 넘긴다. '걸'이 나오면 옷가락 2개를 엮어진 형태로 서로 엮갈리게 놓고(十자 모양) 그(위에 올려진 옷가락) 위에 한 개를 젖힌 상태로 올려놓는다. 그런 다음 나머지 한 개를 집어 젖혀진 옷가락이 올려 있는 옷가락의 반대편을 쳐서 넘긴다. 이처럼 젖혀진 옷가락이 엮어지면 점수를 따게 된다. 도는 1점, 개는 2점, 걸은 3점이다. 그런데 '옷'이 나오면 먼저 얻은 점수를 잃게 된다. 모가 나오면 가장 좋은 것으로 5점을 얻는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혼암리의 보리웃놀이는 던지는 방법은 일반 옷놀이의 형태와 같은데 젖혀진 옷가락을 다른 옷가락으로 쳐서 모든 옷을 '모'의 엮어진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 추가된 보다 재미있고 색다른 옷놀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보리껍기'라 하여 옷을 한꺼번에 손을 돌려 꺾는 놀이가 있다. 이 놀이에 사용되는 옷가락은 일반 옷가락보다는 길고 가는 편이다.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열 번 놀기' (10번 해서 승부 내기) 등과 같이 회수를 정해 놓고 놀며, 점수를 많이 내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 지면 벌칙으로 노래를 하였다. 이 놀이는 주로 정월에 놀았다.



#### • 흥전

정월대보름 무렵 달밤에 혼암리 아랫마을과 옷말이 편을 갈라 서로 흥을 던지며 싸우는 놀이이다. 주로 스무살 밑 청소년들이 놀았다. 놀이방법은, 양쪽 마을에서 중간 지점을 정해 놓고 양편에서 서로 흥을 던지며 싸운다. 흥덩이를 맞으면 아파도 크게 심하게 다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중부지방에서 보름에 행했던 석전, 즉 돌싸움과 같은 놀이인데 돌 대신에 흙을 던져 돌로 인한 심한 부상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

### • 뱃놀이

흔암리 마을에서는 봄에 가래질을 해놓고 못자리를 끝낸 뒤 모내기 전에 뱃놀이를 하였다. 흔암리에는 나룻배 한 척과 강을 건너다니는 작은 배 한 척이 있었다. 나룻배는 30명 정도 탈 수 있는데 이 배를 내어 하루 종일 뱃놀이를 하였다. 술과 쌀, 반찬, 생선 등 음식을 준비하여 배에 싣고 강천, 자산, 합수머리까지 올라가서 배에서 음식을 해먹고 놀다가 내려온다. 올라갈 때에는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천천히 가고, 내려올 때는 빨리 내려오지 못하도록 닻을 달아놓는다. 배에는 놀 때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배 옆에 막대기로 얼기설기 망을 만들어 놓았다.

뱃놀이는 남녀가 따로 따로 놀았다. 처녀들은 가지 않고 젊은이들은 밥과 심부름을 하기 위해 같이 갔다.

뱃놀이를 할 때는 “에야로야노야 에야로나누 배 띄어라 뱃놀이 가잔다”와 같은 〈뱃노래〉나 〈정선아리랑〉 등을 불렀다.

흔암리 노인들은 뱃놀이 하던 때가 제일 재미있었다고 회고하며 다시 한번 옛날처럼 뱃놀이를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 2)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의 민속

### ■ 마을 개관

여주읍 천송리는 신륵사 근처에 있는 마을로 과거에는 조포마을로 불렸으며, 이곳에는 조포나루가 있다. 이 마을은 과거에 20여 호의 작은 마을이었으며 농토도 적은 편이다. 주민들의 생업은 농사와 고기잡이, 절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선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가구 정도가 뱃일을 하였다. 그리고 나루터 주변에 주막이 두 곳 있었다. 성씨는 창씨가 많은데 이들은 신륵사 대처승의 후손들이다.

조포마을에는 6·25 전후하여 배가 3척 정도 있었다. 배로는 사람과 우마차, 트럭



제보자 박광식

등을 운반하였다.

현재 천송리는 100여 호인데, 60호 정도는 현지인이고 40호는 외지인이 들어와 주로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 장시는 주로 여주장을 이용한다.

현재 조포마을 강변에는 보트장이 있고, 과거 조포나루터 앞에는 황포돛배를 제작하여 체험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 ■ 나루와 생활

천송리 조포마을에는 조포나루가 있고 강 맞은편에는 여주나루가 있었다. 과거 조포나루와 여주나루는 남한강 4대 나루의 하나에 들 정도로 주요한 나루였다.

배는 상선과 도선이 있었다. 강원도 영월에서 오는 떼배는 6·25 전에 많았고, 1950년대까지도 떼배가 많이 다녔다. 떼배가 서울로 내려갈 때 조포나루 정자 부근 칼바위 있는 곳이 물이 잘 흐르지 않으므로 떼배를 놓고 쉬어 갔다. 여름에는 강 맞은편에 있는 영월루에서 뗏군들이 자고 가기도 하였다.

떼배가 조포나루 부근 제비여울(제비울, 연자탄)을 지날 때면 아이들이 “돼지우리간 저라.”고 뗏군들을 놀려 주곤 하였다. 실제로 조포에서 떼가 걸리면 떼를 풀어서 팔고 가기도 하였다. 떼배는 영월에서 비가 많이 와 수량이 풍부한 여름철에 띄웠으며 종착지인 마포나루에서 떼를 풀었다.

상선은 도자기를 싣고 가고 소금, 새우젓, 광목 등을 받아다가 충주에서 팔았다. 곡식 등 산지 물건은 서울에 가서 팔았다. 새우젓이나 쌀, 잡곡 등을 실은 배의 모습은 황포돛배와 비슷하였다.

조포나루를 중심으로 충주 방향으로 강천나루가 있고 마포 방향으로 여주나루가 있었다.

현재 조포나루터에는 과거 조포나루가 있던 곳에 표지석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황포돛배와 조포나루

황포돛배는 황포를 돛에 달고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서해바다의 수산물과 내륙지방의 농산물을 수송하였던 장사배였으며 신륵사와 지평, 양동으로 통행하는 이곳 조포나루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남한강 상류의 전통배임.

또한 이곳 조포나루는 충주에서 서울까지 수운의 이용이 번성할 시기에는 신록사 하류에 보제원이 설치되어 통행자의 숙박을 제공하기도 하였던 조선시대 한강의 4대 나루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여주군에서는 잊혀져가고 추억 속에만 있는 남한강의 황포돛배를 전통기법으로 제작(길이 15m, 높이 1.7m, 폭 3.5m)하여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체험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다.



재현된 황포돛배

현재 남한강의 생태계는 충주댐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생겼다. 댐의 물을 위에서 빼어 주어야 하는데 밀구녕의 따뜻한 물을 내려 보내어 고기가 많이 사라졌다. 그리고 산란기인 5~6월에 댐 밑에서 찬물을 내려 보내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종이 전멸하기도 하였다. 장마질 때 물이 따뜻하니까 고기는 모이는데 산란은 하지 못한다. 팔당댐이 준공된 뒤에는 바다에서 오는 장어, 참계, 송어가 사라졌다.

현재 어종으로는 눈치, 모래무지, 피래미, 붕어 정도가 있다. 어종의 증식을 위해서는 댐 옆에 고기가 다니는 어도(魚道)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댐의 의한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라 충주에서 댐 밑의 물을 빼서 내보내기 때문에 물이 차서 여름에 수영을 할 수 없어 관광객도 예전보다 많이 감소하였다.

그밖에 방생에 의한 강의 오염도 있다. 대보름 전날 방생을 하는 고기는 주로 수입 자라이다. 수입 자라는 따뜻한 물에서 양식한 자라이므로 수온이 맞지 않아 모두 죽게 되어 강만 오염시키고 있다.

## ■ 특산물

• 여주 잉어 : 예로부터 여주 잉어는 유명하여 임금님께 진상하는 고기였다. 어느 해 겨울에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불어 여주에서 잉어를 잡아 올리지 않고 광나루에서 잡은 잉어를 진상하였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 맛이 이상하여 “이것이 어디 잉어나?”고 물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현대에 와서 5·16 이후에서 청와대에 여주잉어를 진상하였다고 한다. 그만큼 여주잉어는 맛이 좋기로 유명하였다.

## ■ 민간신앙

- 뱃고사 : 정월 보름 지나 얼음이 풀리면 뱃고사를 지낸다. 뱃고사는 돼지머리와 막걸리, 북어, 시루떡을 놓고 강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 용신제 : 여주군과 문화원에서 용신제를 지낸다.

### 3) 여주군 능서면 내양1리의 민속

#### ■ 마을 개관

여주군 능서면 내양1리는 '양화동'이라고도 부른다. 이곳 양화마을에는 양화나루터가 있다. 내양1리 강 건너편은 대신면 울촌리이며 과거에는 나룻배로 왕래하였다. 양화마을에서 여주읍까지는 대략 20리 길이다.

내양1리 양화마을은 6·25 전에는 50여 호였고 이후 40호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성씨는 모두 각성바지이며 토박이는 현재 8가구 내외가 있는 정도이다

생업은 농업이 대부분이다. 작물은 쌀과 밭작물로 조, 콩, 옥수수를 생산하였다.

과거에 양화마을에는 짐배가 2척 정도 있었고, 배 하나에 5, 6명이 붙어 일을 하였다. 그리고 고기잡이 하는 집도 한 두 집 정도가 있었다. 따라서 배를 가진 사람은 적었고 나루에서 주로 잡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정도였다.

양화마을에서는 동제가 1960년대에 사라져 현재 동제를 지내지 않고 있으며, 주민의 90% 정도는 기독교 신자이다.

장사는 마을에 양화장이 서서 이를 이용하였으며, 양화장 다음에는 흥천장, 이포장의 순서로 장이 섰다.

#### ■ 나루와 생활

양화나루는 강 건너 대신면 울촌리로 내왕하는 나루터일 뿐만 아니라 영월에서 오는 떼배가 이곳에 배를 대어 놓고 주막집에서 쉬어 가는 곳이기도 하였다. 떼배는 1950년대까지 다녔으며 팔당댐이 생긴 뒤로 다니지 않게 되었다.

이곳 양화나루에는 충청도에서 곡물을 실은 짐배가 오고, 영월 쪽에서는 뗏목만이 왔다. 떼배를 보면 아이들이 "돼지우리 저라, 돼지우리 저라."고 놀려대곤 하였다. 이



양화 나룻길

나루터비의 밑에 새겨진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말은 돼지우리처럼 떼배가 망가지라는 뜻이다. 그러면 뗏꾼들은 화가 나서 아이들을 야단치지만 쉽게 떼배를 댈 수도 없기 때문에 배에서 화만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배가 올라올 때는 4~7일이 걸리는데 배를 밀고(끌고) 와야 하기 때문에 배 하나에 5, 6명이 필요하였다. 짐배는 30m 정도 크기고 황포로 돛을 달았다.

내양리 강변 입구에 소박하게 세운 양화

남한강가에 있는 교통의 요지로 여주읍까지 20리 이천읍까지 30리 거리에 있어 6·25 전만 해도 50집 남짓의 마을을 이루고 있었으며 팔당댐이 이룩되기 전까지 강원도에서 띄어 내리던 뗏목으로 사람이 머무르기도 했던 뱃길의 요충지였다.

### ■ 민간신앙

- 서낭곳 : 당곳은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든 해 정월 보름쯤에 날을 받아서 크게 하였다. 당곳을 하기 전 먼저 부정을 가신다. 매년 고사는 지내지 않고 3년에 한 번씩 당곳만 해왔으나 1960년대에 사라졌다.

제수는 소를 잡아서 썼으나 나중에는 돼지로 대신하였다. 장승도 당곳을 할 때 깎아서 세웠다. 재질은 아카시아나무 중 좋은 것을 골라서 사용하였다. 아카시아를 쓴 것은 이 나무가 잘 썩지 않기 때문이다. 장승의 명문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라고 새겼다. 장승은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냥 두었다. 장승의 위치는 이 마을 개울 쪽 옛날에 큰길이 있는 곳에 있었으며 그래서 이곳을 '장승백이' 라 하였다. 이 또한 1960년대 당곳이 소멸될 때 함께 사라졌다.

- 강곳 : 양화나루 근처 앞강에서 매년 사람이 한 명씩 죽었다. 이는 귀신이 불러들여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 죽은 귀신이 때가 되면 하나씩 끌어들여야 자기(혼)가 물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늘 타곳 사람들이 놀러 와서 죽었다 한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집에서 뉘 건지는 강곳을 하곤 하였다. 1980년대까지 매년 익사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 도깨비불 : 양화나루에 나룻배가 있었는데 강 건너서 부르는 소리가 있어 갔더니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버덩에 불이 번쩍번쩍해서 이 불을 밤새도록 쫓아다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은 밤나무 썩은 것이 야광처럼 빛을 낸 것이라고 한다.

## ■ 세시풍속

### 1월

#### [설날]

설날에는 먼저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한 뒤 성묘를 간다.

• 차례(상)·세배 : 설날의 차례상은 보통 제사상과 같은데 떡국을 놓는 점이 다르다. 일반적인 차례음식은 떡국, 적(돼지고기), 조기, 숙주·고사리·도라지·고사리나물, 과일로 밤·대추·꽃감·사과·배, 그리고 산자 등이다. 떡국 대신 가정에 따라서 메(흰쌀밥)를 놓기도 한다. 그리고 떡국에 만두는 넣지 않는다. 가정에 따라서는 약밥을 해먹기도 한다. 그밖에 금기음식으로 콩나물은 차례상에 올리지 않는다.

• 세배 : 세배는 차례를 지내고 아침식사를 한 뒤에 하며 그 다음에 성묘를 간다. 지금은 세배를 다니는 사람이 없다.

• 성묘 : 설날에 성묘는 가정에 따라 간단히 주과포만 가지고 가기도 하고 준비해 둔 음식을 더 가지고 가기도 한다. 성묘할 때는 먼저 무덤의 오른쪽 적당한 곳에 가서 산신제를 지낸다. 산신제는 간단히 술 한 잔을 부어 놓고 절을 한 뒤 3번에 나누어 술을 뿌린다.

• 놀이 : 설에 하는 윷놀이를 비롯하여 여자들의 널뛰기가 있고, 아이들놀이로는 짚공차기, 구슬치기, 자치기 등이 있다. 주로 보름까지 놀았다.

####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에는 부시럼깨물기, 귀밝이술, 더위팔기, 오희밥, 나무 아홉 집하고 밥 아홉 번 먹기, 달맞이(달보기) 등의 풍속이 있다. 놀이로는 거북놀이, 쥐불놀이 정도가 있었을 뿐이고 줄다리기, 햇불싸움, 석전놀이 등은 없었다. 설에서 시작된 놀이들은 보름까지 하였으며 보름이 지나면 놀이를 하지 않는다.

• 흰밥먹기 : 보름날 아침에는 흰밥을 먹는데 김에 싸 밥을 먹는다.

• 김치 안먹기 : 보름날 아침에 김치는 붉은 고춧가루가 있어 먹지 않는다.

• 부시럼 깨물기 : 보름날 이른 아침에 호두, 밤, 땅콩 등 딱딱한 과일을 깨물어 던지는데 이는 부스럼을 앓지 않게 해달라는 뜻에서이다.

• 귀밝이술 : 보름날 새벽에 일어나 귀밝이술로 청주나 약주를 마신다.

• 더위팔기 : 보름날 아침에 더위를 파는데, 집밖에서 친구가 부르면 대답하지 않고 “내 더위 사가라.”라고 외쳐 더위를 판다. 만일 대답을 하게 되면 친구의 더위를 사게 되는 것이다.

- 나무 아홉 짐 하고 밥 아홉 번 먹기 : 정월 보름 전날에는 나무 아홉 짐을 하고 밥을 아홉 번 먹는 풍속이 있다. 이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 오탁밥 : 정월 보름날 오탁밥을 해먹는다. 오탁밥은 찹쌀·수수·조·팥 등 여러 가지 곡식을 넣어 지은 것이다. 오탁밥은 해 넘어가기 전에 일찍 지어 먹으며 이웃집을 불러서 같이 먹는다. 아이들은 밤에 몰래 오탁밥을 훔쳐서 친구들과 같이 먹으며 놀기도 한다.

- 거북놀이 : 거북놀이는 정초부터 보름 무렵까지 주로 동네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농악대를 꾸미고 거북이를 만들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을 빌어주며 놀았다.

거북이는 옥수숫대 이파리로 이엉을 엮어 만드는데, 몸체는 먼저 나무로 모형을 만든 다음 이엉을 둘러싸우고, 머리는 따로 만들어 몸체에 붙이고 눈썹은 이파리로 붙인다. 거북이가 완성되면 두 사람이 거북이 모형에 들어가는데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이 들어간다. 거북이는 마부가 끌고 간다. 1960년대 초까지 놀았으며 그 뒤 복원은 되지 않았다.

- 쥐불놀이 : 대보름날 아이들이 짚을 길게 묶어 자기 나이 숫자만큼 매듭을 지어 놓고 달이 뜰 때 불을 붙여 아래 위로 흔들며 노는데 이를 쥐불놀이라 한다. 지금은 강릉에 불을 붙여 논다.

## 2월

[2월 초하룻날]

- 나이떡 해먹기 : 2월 초하룻날에는 나이떡을 해 먹는다. 나이떡은 나이 숫자대로 송편을 조그맣게 만들어 먹는 것으로 송편 속에는 팥, 녹두 등을 넣는다.

- 금기 : 2월 초하룻날 여자들은 남의 집에 가면 좋지 않다고 하여 가지 않는다.

## 3월

[삼진날]

3월 3일 삼진날에는 특별한 풍속은 없고, 다만 '제비가 오는 날' 로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 4월

[4월 초파일]

- 불공드리기 :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초파일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주로 보통리에 있는 절에 많이 간다.

## 5월

[단오]

• 그네뛰기 : 단오날 동네에 있는 수백 년 된 고목에 그네를 매어 뛰었다. 그네는 남녀 모두 뛰었으며 멀리 나가기 내기를 하기도 하였다. 단오날 그네를 매어 여름 때까지 뛰었는데 현재 고목은 없어졌다.

## 6월

[유두]

• 유두에는 행사가 없다.

## 7월

[칠석]

• 칠석에는 별반 특별한 행사가 남아 있지 않다.

[백중]

• 백중장·씨름대회 : 백중에는 장이 크게 섰다. 백중 무렵이면 동네 백사장에서 씨름대회를 하였고, 백중장이 서면 씨름대회에 참여하였다. 대신장, 여주장, 곡수장, 양평장, 흥천장에서 씨름대회를 하였는데 여주장이 제일 컸다. 우승자에게는 상으로 송아지, 광목 등을 주었다.

## 8월

[추석]

• 송편차레 : 추석에는 차레를 지내는데 설날 차레와 같으나 떡국 대신 송편을 올린다. 송편 외에 증편도 찌서 올리는데, 증편은 맨드라미꽃을 따서 꽃 모양으로 만들었다.

## 9월

[중구]

• 음력 9월 9일 중구에는 특별한 풍속이 없다.

## 10월

• 상달고사 : 추수를 한 뒤 10월에 날을 받아 시루떡을 찌서 고사를 지낸다. 고사떡은 햅쌀을 절구에 빻아 시루에 괄과 함께 쪄켜이 넣고 찐다. 고사는 먼저 대청마루에 떡시루를 통째로 놓고 시루 가운데 물 한 대접(정화수)를 떠서 놓는다. 술은 작은 상에

막걸리를 한 잔 부어 놓는다. 이어 절을 하고 “우리 집안 무병장수하게 해 달라.”고 빈다. 그런 다음 떡을 썰어 모판에 쏟아 놓고 부엌, 광, 장독대에 썬 떡을 조금씩 가져다 놓는다. 가정에 따라서는 떡을 조금씩 떼어 울타리에 뽕 둘러가며 놓기도 한다. 이는 귀신에게 떼어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후 40~50분이 지난 다음 가져다 먹는다. 고사떡은 이웃집에 돌려 먹는 것이 상례이다.

지금도 내양리(양화동)에서는 10월에 고사떡을 해서 먹는 집들이 있다.

## 11월

[동지]

- 동지팔죽 : 동짓날에는 팔죽을 쑤어 먹는데 애동지(보름 안쪽에 든 동지)에는 팔죽을 쑤지 않고 주로 노동지(보름 이후에 든 동지)에만 쑤어 먹는다. 팔죽을 쑤어 집안 외벽에 둘러가며 뿌리며 “잡귀 물러가라. 너두 먹고 물러가라. 너두 먹고 물러가라. 너두 물러가라!”고 소리를 한다. 외벽뿐만 아니라 문간에 뿌리기도 한다.

### ■민속놀이

#### • 거북놀이

거북놀이는 정월 정초부터 보름께까지 주로 동네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놀았던 놀이이다. 동네에서 농악대를 꾸미고 거북이를 만들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을 빌어 주며 놀았다.

거북이가 한 집에 도착하면 주인집에서는 술상을 차려 내온다. 놀이꾼들은 술을 한 잔 먹고 흥이 나서 노는데, 거북이는 몸을 흔들며 춤추고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하는 등 신명나게 놀았다. 1960년대 초까지 놀았으며 그 뒤 복원은 되지 않았다.

과거에 행해졌던 거북놀이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준비과정으로 거북놀이 도구를 만든다. 거북이는 옥수숫대 이파리를 따서 이영을 엮어 만드는데, 몸체는 먼저 나무로 모형을 만든 다음 이영을 둘러싸우고, 머리는 따로 만들어 몸체에 붙이고 눈썹은 이파리로 붙인다. 거북이가 완성되면 두 사람이 거북이 모형에 들어가는데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이 들어간다. 거북이는 마부가 끌고 간다. 거북놀이꾼들은 농악대와 함께 동네의 각 집을 방문하여 마당뺨이를 하며 돌아준다.

거북놀이 일행이 대문 앞에 도착하여,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면 주인이 나오면서,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일행을 맞이한다. 이어 거북놀이꾼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들렀는데 먹을 것이 있으면 물 한 모금 주시오.”  
 하면 주인이,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술상을 차려 내온다. 술상을 대접받은 거북놀이꾼은,  
 “물 한 모금 먹으니까 배가 불러서 힘이 저절로 생기는데 우리 한 번 놀아보세.”  
 하고 마당뺨이를 하며 한바탕 논다.  
 그런 다음 거북놀이꾼은,  
 “이제 실컷 놀았으니 다른 집으로 한 번 놀러가세.”  
 하고 다음 집으로 간다.

#### 4) 여주군 금사면 이포1리의 민속

##### ■ 마을 개관

이포의 옛지명은 천녕(川寧) 또는 천양(川陽)으로, 이곳에는 남한강의 4대 나루의 하나인 천양나루, 곧 이포나루가 있다.

이포(梨浦)라는 명칭은 이곳을 지나는 상인들이 배나무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 배나무 ‘이(梨)’와 물가 ‘포(浦)’를 써서 ‘이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다른 이름으로 배개나루·배나루·배개 또는 이포진으로 불리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수구말, 천양, 근정리, 서원, 뒷골이를 병합하여 이포리로 불렀다. 지금은 수구말·큰말을 이포1리로, 근정리·뒷골·서원을 이포2리로 나누고 있다.<sup>29)</sup> 현재 이포리의 가구수는 이포 1, 2리를 합해 대략 400~500



이포나루터 입구에 세워진 비석

29) 국립문화재연구소, 《경기도 세시풍속》, 2001, p. 8



제보자 장태봉

호가 된다.

옛날에 여주는 읍이 여주읍과 천양읍 두 군데였는데, 과거의 천양인 이포는 민참판과 홍승지가 있어 그 세력으로 번창하였다. 이 고장의 땅은 거의 다 그들의 땅이었고 당시 민참판네 집은 99칸이었다. 이포의 천양최씨네와 남양홍씨네도 도선이 묘를 잡아준 곳에 묘를 쓴 뒤 집안이 번창하였다. 지금 이포에는 천양최씨 한 집만이 남아 있고, 홍씨네는 모두 떠나고 없다.

이포나루 건너편은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이며 나룻배로 내왕하였다. 이포에서 천서리에 갈 때는 주로 농사를 지으러 건너갔고, 천서리 주민들은 이포장을 볼 때 나룻배를 이용하였다. 이포에는 배 부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1991년 이포대교가 완공된 뒤 강 건너에 농사짓는 사람들의 타격이 심했다. 교통이 불편하여 농토를 도지로 주거나 팔아버렸다. 현재 밭작물로 땅콩, 참외, 그 외 조, 수수 등이 생산되고 있다.

이포리의 오랜 역사와 함께 마을의 가장 큰 행사로 치러지는 삼신당의 고창굿은 현재 기독인들이 많아 경비 추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 ■ 나루와 생활

이포나루는 조선시대에 세곡(稅穀)과 물화(物貨)를 싣고 풀던 큰 나루였다. 인근에 양화역(楊花驛)과 이천창(利川倉)이 있어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모아 서울로 내려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포나루는 찬우물(홍천)에서 온 나룻배가 쌀, 보리쌀 등 곡물을 넘기고 갔고, 양평에서 해물을 실은 배가 이포나루에서 내리고 이천까지 갔다.

과거에 이포는 남한강 4대 나루의 하나일 정도로 큰 나루였다. 영월에서 떼(떼배)를 가지고 내려오면 반드시 이포에서 잤다. 떼배(뗏목)에는 아무것도 싣지 않고 떼, 곧 나무 자체를 영월에서 만들어 마포에서 풀었다. 장배는 충주 쪽에서 곡식 등을 싣고 서울로 내려가서 팔았다. 장배는 뱃머리가 높고, 여울을 내려갈 때는 뒤 노 젓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노를 저어 내려갔다. 뒤에 키가 있어 키로 방향 전환을 한다. 장배에는 떼배보다 사람이 많았다.

이처럼 이포나루는 수운의 중요 지점이어서 주막이 발달하였다. 또한 상호리, 하호리에는 금전판, 곧 금광이 있어 이곳에는 술집들이 많았다. 그래서 배꾼들은 투전이나

색주가로 돈이나 물건을 털리기도 하였다.

이포나루에서 목계 쪽으로는 양촌나루가 있고, 서울 방향으로는 개군나루(양덕나루)가 있다.

1960~1970년대 이포나루의 도강배는 입찰로 권리를 주었다. 뒤에 도신배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차도 싣고 다녔다. 1980년대(1980?1989) 거룻배는 강 건너편에 줄을 도르래로 매어 사람과 차, 소를 운반하였다. 차는 배에 5대 정도 실었으며 소는 강 건너편 밭을 경작하기 위해 싣고 갔다. 1989년 당시 도강배의 운임은 차는 5000원, 사람은 200원이었다. 당시 밭에는 땅콩이 많이 생산되었고, 그 후 이포대교가 생긴 뒤에는 고구마를 7~8년 간 경작하였다. 1991년 이포대교가 완공된 뒤 거룻배는 사라졌다.



이포나루터 표지석

현재 이포나루터에 있는 '이포나루터 유래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

#### - 이포(梨浦) 나루터 유래(由來)

인류의 생존기반은 물이었으며, 그 물줄기를 따라 인류가 모여들고 생활 문화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였다.

여기의 이포나루는 삼국시대부터 남한강의 중요한 나루터로서 강원도 등 내륙을 오가는 행인과 생필품 운반은 물론 강의 유수를 이용한 뗏목 수송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이포리에서 머물며 상권이 조성되었으며 일제시대에는 인근 상호리에는 큰 금광이 있어 인부와 상인이 드나들어 주막과 여각이 즐비하여 한 시대 영화를 간직하던 곳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서울의 마포·광나루·여주의 조포나루와 함께 한강의 4대 나루터로 불리면서 경제 활동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조선조 6대 단종대왕이 숙부인 세조의 왕위찬탈에 의거 이곳을 지나 영월로 유배가시면서 한양을 그리워하며 통곡을 하시던 곳이었다.

또한 고종황제의 正妃인 명성황후께서는 고종 19년(1882)에 발생한 임오군란의 화를 피하기 위해 이곳 이포나루터에서 3일을 기거하신 후 재임성을 기다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장호원으로 피신하였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6·25 사변 때는 치열한 격전지로 유명했으며, 1991년 이포대교의 준공으로 도

선 운행이 중단되면서 옛 이포나루의 추억이 우리 기성세대에게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 ■장시

### • 이포장(천양장)

이포장은 일명 '천양장'이라고도 하는데 과거에 이포는 '천양'이라고 불렸다. 이포장은 5일장으로 매달 1일과 6일에 장이 선다. 1일장은 천양, 2일장은 이천, 3일장은 양평, 4일장은 대신, 5일장은 여주에 장이 섰다.

과거에 이포장은 흥천, 대신, 상호, 도고 등지에서 주민들이 장을 보러 왔으며 금사면에서는 제일 큰 장이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동안 장이 없어졌다가 새로 생긴 지 10년이 채 안 된다.

## ■민간신앙

### • 뱃고사

뱃일을 하는 집에서는 매달 음력 초하룻날 뱃고사를 지낸다. 제수는 간단히 막걸리와 북어만 쓴다. 뱃고사는 선주 혼자 지내는데 새벽에 이포나루에서 동쪽으로 제수를 놓고 절을 3번한다. 뱃고사를 크게 할 때는 가을에 낚을 잡아 팔시루와 돼지머리, 막걸리, 북어 등을 남한강 남쪽에서 동쪽으로 제상을 차리고 절을 한다. 고사는 대개 해지기 전 3~4시 경에 지낸다. 고사 때는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해달라."고 속마음으로 빈다. 가을 뱃고사 때는 무당을 데리고 가기도 했으나 나중에는 혼자 지냈다.

영월, 충주에서 비가 오면 물이 불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여 뱃고사를 정성껏 지냈다.

### • 업할아버지 · 업할머니와 터주

업할아버지와 업할머니는 고 장석환씨 집에는 장독대 옆 대추나무 아래 소나무가지 덩불로 되어 있다. 터주는 신체는 없고 장독대에서 제만 지낸다.

### • 안택고사

#### (1) 이포1리

햇곡식 수확에 대한 감사로서 시루떡을 찌서 고사를 지낸다. 시루떡은 찹쌀시루떡, 멥쌀시루떡, 무시루떡 등 세 가지를 찌다. 무시루떡은 무채를 넣어 찌는 것이다. 이때의 안택고사는 정초의 고사와 마찬가지로 저녁식사 후에 아녀자가 성주 · 터주 · 장광 등에 시루떡을 올려 놓고 벼수확에 대한 감사와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고사를

지낸다. 또한 고사를 지내기 전에는 잡귀와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문 앞에 황토  
흙을 세 군데 뿌려 놓는다. 고사를 지낸 후에 황토흙을 치워버린다.

## (2) 이포2리

주로 정월 2일에 하는데, 모든 집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주  
로 정월 15일에 지낸다. 어떤 집은 절에서 날을 받기도 한다. 제물은 보통 막걸리·시  
루떡·북어를 올리는데, 형편이 좋은 사람은 돼지머리를 올리고, 술을 싫어하는 사람  
은 냉수를 올린다. 고사는 저녁식사 이후에 해가 떨어지면 지낸다. 고사를 지낸 후에는  
이웃과 시루떡을 나누어 먹는다. 고사는 안방·성주·터주·변소의 순서로 지내는  
데,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다. 어떤 제보자는 시어머니가 마루 대들보(성주)에서 고사  
를 지낸 후 대문 앞에 시루를 떼어 놓고 절을 한 후에 집안으로 들어와서 시루를 모두  
쏟아 놓고, 부엌·장독·변소·광에 각각 한 접시씩 올려 놓았다고 한다.(이포2리)

### • 삼신당

금사면 이포리에 있는 마을 신당이다. 당의 유래는 이포에 흥역마마, 염병이 심해 천  
양최씨 서낭을 모시고 제를 지내게 되었다. 일제시대 때부터 지서장이 오면 여주읍에  
서 인사를 왔다고 한다.

당 안에는 서낭 내외와 용신을 모시고 있다. 용신을 모시는 것은 이포강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시는 것이다. 당나무(서낭나무)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이다.

정자 밑에 고목나무 세 그루가 있는데 신 보는 사람이 보니 신이 울고 있었다. 왜 우  
느냐고 하니 신을 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하여 구한국시대에 당을 지어서 위  
하게 되었다.(이중선, 79세, 이포1리, 1996.5.12 조사)

현재의 삼신당(서낭당)은 왜정 때 서낭당 자리에 신사를 세우고 그 한쪽 귀퉁이에 서  
낭당을 옮겨 세웠다가 다시 제자리에 세운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계단은 신사를 세울  
때 조성된 것이다. 왜정 때 신사를 짓기 위해 서낭당을 옮긴 뒤 일본인 문간의 아들이  
익사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 이포 고창굿(삼신당굿)

이포 고창굿은 삼신당굿·삼신당제·삼신제 또는 '별신' 지낸다고도 한다. 이 굿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명한 굿으로 현재까지도 전승이 되고 있다. 이포나루가 남  
한강 수운의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이포 고창굿이 더욱 이름이 높았던 것으로 보  
인다. 왜정 때 이전부터 오랜 동안 정성을 드렸다. 정성을 드리는 마을은 큰말·큰장  
이·서원·뫼골·수구천(수구마을) 등 5개 마을로 이들 마을에서 추렴을 하여 제비를

충당한다.

삼신당제의 유래는 예전에 동네에 흥역마마 염병이 많아서 최씨서낭(천양 최씨)을 모시고 제를 지내게 되었다. 또한 배에 다니는 사람 뱃짐 싣고 잘 다녀오라고 드리는 정성이기도 하다.

이 곳은 3년에 한 번씩 음력 3월 초승에 날을 받아 3일 간 행해진다. 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7일 간 하였다. 이 곳은 동네가 잘 되게 돌봐 달라고 신령님께 올리는 것이다. 기간은 3일 간인데 예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7일간 하였다. 해방 전에는 난장을 크게 트고, 삼현육각을 잡히고 여러 가지 놀음놀이를 하였다. 난장 판에는 광대 줄타기와 접시돌기기, 탈춤, 그네뛰기 등 여러 가지 놀음놀이를 하였고, 술과 음식을 팔고 투전패들이 도박도 하였다. 이때 각지에서 구경꾼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충청도에서도 구경을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해방 후에는 놀음놀이들이 끊어졌다가 1996년 고창굿 때 상쇠 문경남(1996년 당시 86세, 외평리)에 의하면 처음 줄을 탔다고 한다.(1996.5.12. 김선풍·김이숙 조사)

1996년 당시 농악은 경노당 노인들이 맡았다. 농악대는 상쇠 문경남(당시 86세, 외평리), 부쇠 심창구(80, 이포리), 기발이 임창규(71세, 이포1리), 날라리 원일봉(82세, 북내면 지내리), 북 이구호(80세, 흥천면 문장리 450), 장구 정용욱(77세, 이포리 185), 징 문기성(83세, 이포2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당굿은 주무 임춘수를 비롯하여 최주희, 안광자, 한진수 등이 참여하였다.

제물로 옛날에는 소를 잡았는데 현재는 돼지를 쓴다.

이포 고창굿의 진행은 부정풀이, 당굿(당맞이굿), 산바람(산거리), 군웅거리, 불사거리, 신장거리, 산대감거리, 장군거리, 대신·동자, 대감거리, 마당굿의 순서로 행해지고, 용왕굿(배굿)은 이포나루터에서 행해진다.

#### • 기우(祈雨)

여름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면 마을에서 만팔이나 만며느리가 무쇠뚜껑(소당뚜껑)을 쓰고 강물에서 키에 물을 담아서 아래위로 까분다. 이날 남자들은 일절 참석하지 않는다. 기우(祈雨)하는 날을 받아서 저녁 무렵 강가에서 하는데, 제물은 없다. 복장은 평상시에 입는 치마저고리를 입는다. 마을에서 만팔과 만며느리를 모으면 사람 수가 적지 않다. 기우를 그렇게 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며칠 후에는 비가 온다. (이포2리)

#### • 성주풀이

성주풀이를 원하는 집에서는 고사반을 준비한다. 고사반에는 쌀 한 말, 대주 한 주

밭, 흰실 한 타래, 돈을 놓아둔다. 풍물패들은 고깔·상모·한복을 입고 팽과리·장구·북·소고 등의 악기를 치며, 깃대(농기)를 들고 농악놀이를 한다. 고깔을 쓴 사람이 축을 하는데, 축의 내용은 가정의 번창과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성주풀이에 사용하는 깃대는 삼선당에 모신 것으로 하얀색 천에 글자를 써 넣었고, 끝에는 꿩털을 달아 놓은 것인데, 두레기와 비슷하다. 풍물패들은 대개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문밖의 우물에서 먼저 우물굿을 하며, 성주풀이를 하러 가는 집에는 미리 통보를 한다.

풍물굿을 하는 순서는 먼저 대청마루(성주) 앞에서 시작하여 축원을 하며 마당에서 노는데, 이동하는 순서는 집집마다 다르다. 마을의 모든 가구가 성주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형편이 되는 집에서 한다. 집주인은 성주풀이의 댓가로 술과 안주 그리고 돈을 준비한다. 고사반에 올린 쌀을 풍물패들이 가지고 가는데, 그 쌀의 용도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성주풀이에 응하지 않는 집은 그 집이 망하라고 깃대를 거꾸로 들고 나간다고 한다.(이포2리)

## ■ 세시풍속

### 1월

#### [설날]

• 차례 : 차례는 집에 따라서 다르나 아침 7시경 지내며, 차례를 지낸 뒤 차례상을 치우고 세배를 한다. 성묘를 다녀온 뒤 일가친척과 동네 어른들께 세배를 다닌다.

설날 차례상에는 떡국, 인절미, 적(소고기나 돼지고기), 조기, 나물로는 시금치(또는 숙주), 도라지, 고사리 나물, 과일로 대추, 밤, 꽃감, 배, 사과와, 다식, 술 등을 놓는다. 집에 따라 떡국 대신 메(흰밥)을 올리기도 하고, 떡국 속에는 만두를 넣는다. 술로는 약주를 만들어 썼으나 현재는 정종으로 대신한다. 일반적으로 차례상에 올리지 않는 음식으로는 갈치, 콩치 등과 같이 '치' 자가 들어가는 생선과 콩나물 등이 있다. 근래에는 세배를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

#### [입춘]

• 입춘축 붙이기 : 입춘이면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대경(建陽多慶)' 등의 입춘축을 집안에 붙이는데 그 장소에 따라 입춘축의 글자 내용이 모두 다르다. 입춘축은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맞추어서 축을 썼으며, 작년의 축을 태워 불사르고 새로운 축을 붙이는 것도 시간에 맞추어서 했다고 한다. 또 다른 경우는 작년의 입춘축을 새벽 2시 쯤에 태워 버리라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한 다음 새벽 2시 이후에 새로운 입

춘축을 붙였다고 한다.(이포2리)

- 삼재풀이 : 그해에 삼재가 든 사람이 이를 풀기 위해 입춘날에 절에서 삼재풀이를 한다. 삼재든 사람의 속옷을 하나씩 가지고 가서 그것을 태우면서 염불한다.(이포2리)

#### [정초]

- 고사반 : 정초부터 보름 전까지 고사반을 쳤다. 먼저 정초에 삼신당에서 농약을 치고 동네로 내려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해 행운을 빌어준다. 농약대를 맞이하는 집에서 말에 곡식을 담고 그 위에 실과 돈을 놓아 상을 차렸다. 농약대는 고사반을 쳐주고 끝난 다음에는 다음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맨 끝에는 다시 삼신당에 가서 고한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거둔 쌀을 곳창굿(고창굿)을 할 때 경비로 쓴다.
- 삼신당제 : 매년 정초에 날을 받아 마을고사를 지내는데 평년에는 음력 3일에 날을 받아 고사를 지낸다. 제수로는 소머리(또는 돼지머리), 팔시루, 백시루 3개를 찌 올리고 무속인이 와서 징을 치면서 축언을 하며 간단히 지낸다.
- 복조리달기 : 복조리는 선달그믐에 상인들이 와서 집안 마당에 던져 놓는데, 성냥이나 초와 함께 던지지는 않고, 복조리만 던진다. 아침에 나가 보면 마당에 복조리가 떨어져 있는데, 복 들어오라고 그 속에 돈을 넣어 방문 위에 달아 놓는다. 상인들은 아무 날이나 와서 돈을 받아 간다.(이포2리)
- 용날·토끼날·말날 : 용날은 칼질을 금한다. 용날에 칼질을 하면 농사철에 일할 때에 비가 오기 때문이다. 토끼날은 '툭날'이라고 하며 여자들이 남의 집에 가서 소변을 보면 재수 없다고 한다. 말날에는 장을 담근다.(이포2리)
- 엄나무 달기 : 정초에 액막이를 위해서 엄나무를 대문 앞 위, 방문 위에 매단다. 엄나무에 가시가 많기 때문에 귀신이 범접하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엄나무 외에 다른 것을 같이 매달지는 않는다.(이포2리)
- 액막이연 날리기 : 정초에는 액을 막기 위한 액막이연을 날린다. 정초부터 연을 날리다가 2주가 되는 14일 낮에 연줄을 끊어 버린다. 그해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연에 쓰고, 그 사람의 액운이 멀리 날아가도록 연줄을 끊어버린다. 그 당시 연은 주로 방패연을 만드는데, 연의 살은 시장에서 구입한 대나무를 사용하고, 종이는 주로 부드러운 순지를 사용한다.(이포2리)

#### [14일]

- 빗섬만두 해먹기 : 정월 14일 아침에는 그 해의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서 빗섬만두를 빚어 먹는데, 빗섬만두는 보통 만두보다 크기 때문에 빗섬만두라고 한다. 만두 소

는 김치·두부·돼지고기·숙주·잡채 등을 넣는데, 보통 김치만두를 해서 벗삼만두를 먹는 것으로 생각한다.(이포2리)

- 오곡밥 : 대보름 전날에는 오곡밥과 묵은나물을 먹는다. 저녁 일찍 하거나 점심 겸 저녁으로 오곡밥과 묵은나물을 먹는다. 오곡밥은 쌀·팥·잡쌀·수수·좁쌀 등 여러 가지 곡식을 혼합하여 짓는다. 이날은 오곡밥을 많이 준비하고 밥을 묵혀가며 먹는다. 그리고 이날은 묵은나물은 아홉 가지를 먹어야 한다. 우거지나물(시레기나물), 취나물, 고사리, 호박고자리, 콩나물, 무생채 등 아홉 가지를 준비하여 오곡밥과 같이 먹는다.

밤에는 아이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오곡밥을 얻어먹거나 물래 재미삼아 훔쳐먹기도 한다.(이포1, 2리)

- 아홉 번 행동하기 : 이날은 무엇이든 아홉 번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래서 밥을 9번 먹고 나물도 9번 먹고 나무도 9짐을 해온다.

- 잠안자기 : 보름 전날 밤에 일찍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고 하여 아이들에게 잠을 못 자게 한다. 잠을 자는 아이가 있으면 눈썹에 밀가루를 칠해 놓고 눈썹이 세었다고 놀린다.

#### [대보름]

- 귀밝이술과 부럼 : 보름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호두, 잣, 밤 등 딱딱한 과일을 입으로 물어 깨트렸는데 이렇게 하면 부스럼이 안 난다고 한다. 그리고 귀가 밝아지라고 아침 밥을 먹기 전에 귀밝이술을 마셨다.

- 더위팔기 : 보름날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지 않고 '내 더위 사라' 고 하였다.

- 백반·맑은국·복쌈 먹기 : 정월 대보름 아침에는 흰쌀밥을 짓고 맑은국을 끓여 먹는다. 맑은국은 주로 무국이다. 그리고 흰쌀밥을 김에 싸먹는데, 이것을 복쌈이라고 한다.

한편 이날은 '살빼기가 인다'고 해서 김치를 먹지 않는다. 살빼기는 쇠기에 썬 것 같이 따금거리고 가려운 피부병이다. 살빼기에 걸려 굶으면 좁쌀처럼 피부에 빨간 반점이 생기는데, 대보름에 고춧가루가 든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여 먹지 않는다.(이포2리)

- 용알뜨기 : 대보름날 새벽에 아낙네가 일찍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는데 이를 용알뜨기라 한다. 먼저 물을 떠온 사람은 용알을 건져왔다는 표시로 짚수세미를 던져놓고 온다.

- 고사반 : 정월 보름날 농악대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고사반을 하였다.

- 윗놀이와 척사대회 : 윗놀이를 척사라고 하는데 가정에서는 주로 정초에 놀았고,

대보름날에는 면단위로 금사면 척사대회를 장터에서 하였다. 척사대회 때는 돈을 주고 참가권을 사서 하였다. 놀이방법은 윷놀이 끝판에는 줄을 올리고 큰 장작웃을 넘겨 승부를 내었다.

- 농기세배 : 이포에서는 행사 때 농악을 많이 하였다. 명절에 놀 때 이포가 형님 마을이라 다른 마을의 인사를 받았다.
- 줄다리기 : 대보름날 마을 차원에서 줄다리기를 이포시장에서 한다. 양편을 청과 백으로 나누어 하지만 남녀 간의 편을 갈라서 하는 것은 아니다.(이포2리)
- 망우리 돌리기 : 대보름날 달이 뜨는 것을 보면서 망우리 돌리기를 하는데, 이때에 쥐불놀이도 같이 한다. 참깨단을 새끼를 이용하여 나이 수대로 묶는다. 나이가 선 살이면 선 개, 다섯 살이면 다섯 개를 묶어서 달이 뜨는 것을 보면서 불을 붙여 '달님 달님' 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한 해 소망을 달에게 기원하면서 액막이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정월 15일에 달(만월)이 뜨는 것은 아니다. 하루 이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이포2리)

#### [달귀귀신날]

- 정 버리기(허재비 버리기) : 정월 대보름날 밤에 짚으로 사람의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동전을 꽂아 허재비(정)를 만들어 방안의 아랫목에 세워 두고 하룻밤 재운다. 정월 16일 달귀귀신날 바깥에서 허재비를 파는데, 정을 바깥에 내 놓으면 동네아이들이 정을 동네 삼거리로 가지고 나가서 땅바닥에 내리쳐서 밟으며 태우고, 허재비(정)에 꽂아둔 동전을 꺼내간다. 그러면 액이 날아간다고 믿는다.(이포2리)
- 신발감추기 : 허재비 버리기(정 버리기)를 한 후 정월 16일 밤에는 달귀귀신이 집에 와서 신발을 신어 보고 맞으면 신고 간다고 하여 신발을 마루 밑이나 방안에 감추기도 하고 신발을 엮어 놓기도 한다.(이포2리)
- 달귀귀신쫓기 : 달귀귀신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목화씨 · 고추씨 · 쑥 · 왕소금 · 머리카락을 함께 태워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 집안 곳곳에 불을 흰하게 밝힌다. 이를 집집마다 태웠기 때문에 마을 전체에 냄새가 아주 지독하다.(이포2리)

#### [월내]

- 과일나무 장가들이기 : 그해 과일농사가 잘 되길 기원하면서 복숭아나무 가지 사이에 돌을 꽂아둔다. 지금도 과일나무 장가들이라고 해서 가지 사이에 돌을 꽂아두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열매가 하나 열리든 열이 열리든 큰 가마니를 밑에 두고 탄다.(이포2리)

## 2월

### [2월 1일]

- 나이떡해먹기 : 2월 초하루에는 나이떡이라는 송편을 빚어서 나이 수대로 먹는다. 노인들은 나이 수대로 먹을 수가 없지만, 청년들은 그렇게 먹곤 했다. 송편의 소는 주로 팔을 넣는다.(이포2리)
- 여자가 남의 집 출입하지 않기 : 2월 초하루는 큰 명절이다. 2월 1일 아침에 여자가 남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짐승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남자가 먼저 들어간다. 제보자의 아버지는 초하루에 고사, 대보름에 고사를 지낼 정도로 고사를 충실히 지내는데, 특히 아침에 남의 집 여자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일 싫어했다고 한다.(이포2리)

### [2월 6일]

- 쯔생이보기 : 2월 6일에 밤하늘의 쯔생이별을 보고 농점을 친다. 쯔생이별들이 달에 가깝게 가면 흉년이 들고, 멀리 떨어져서 가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밥을 이고 나가면 가난한 애들이 얻어먹으려고 쫓아오고, 배가 부른 어린이들은 멀리서 따라온다고 하여 가난한 아이와 부유한 아이의 동작을 흉년과 풍년으로 해석한 것인데, 밤이면 쯔생이별 보느라고 하늘을 쳐다보는 노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 2월 6일 날씨가 흐리면 노인들이 많이 서운해 한다.(이포2리)

## 3월

### [삼진날]

- 나비점 : 3월 삼진날에 흰나비를 먼저 보면 그해 상복을 입는다고 하고, 노랑나비를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고, 제비를 보면 몸이 가볍다고 한다.(이포2리)
- 느티나무잎점 : 이포리 경로당 위쪽 야산에는 단오에 그네를 매는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 느티나무 꽃이 활짝 피면 그해 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하고, 그렇지 않고 부분 부분 꽃이 피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이포2리)
- 화전 : 삼진날에는 산에 진달래가 많이 피는데, 이것을 따서 '꽃전'이라는 부침개를 부쳐 먹는다.
- 애기머리 깎아주기 : 3월 삼진날에 애기 머리를 깎아 주면 머릿결이 좋아진다고 하여 할아버지들이 손자·손녀의 머리를 깎아 준다.

### [한식]

- 차례·사초 : 한식에는 조상의 산소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사초를 한다.

#### [월내]

- 풀각시놀이 : 여자아이들이 보리풀을 가지고 각시를 만들어 지금의 인형처럼 가지고 논다. 보리풀을 뜯어서 소금에 살짝 절인다. 그것을 다듬어 정리하여 훌딱 뒤집으면 반드르하게 늘어지는데, 여기에 비너를 만들어 쪽을 찌서 풀각시를 만들어 놀다가 밤에는 처녀 죽은 귀신(손각시)이 된다고 하여 변소나 오줌독에 갖다 놓고 놀곤 한다.(이포2리)

### 4월

#### [초파일]

- 절가기 : 초파일에 절에 간다. 이포 1리에 있는 모현사에 많이 갔고, 궁리에 있는 대성사에도 많이 갔다. 절에는 절월, 초파일, 칠석, 가을(상달고사)에 주로 간다.

#### [월내]

- 고창굿 : 3년마다 음력 4월에 날반이를 하여 고창굿을 한다. 고창굿에는 많은 무당들이 참여하였으며 작두를 타고, 광대들이 와서 줄타기도 하였다. 이때는 투전도 하였고 술장사들도 많았다. 인근의 금사면 근방 흥천, 상호리 등지에서 구경꾼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제의 비용은 마을에서 각각 추렴하여 충당하였다.

### 5월

#### [단오]

- 약썩뜯기 : 단오 무렵 약썩이 많이 나는데, 집집마다 약썩을 뜯어 엮어서 문에 달아 놓았다가 주로 산모의 산후조리에 사용하거나, 여름에 모깃불로 많이 사용한다. 또한 썩은 초상날 때 시체가 나간 방의 네 귀퉁이에 고추씨·목화씨·소금과 함께 태우는데 사용하는데 그러면 시신의 방에 있던 혼이 모두 나간다고 한다.(이포2리)
- 익모초뜯기 : 단오 무렵에 익모초를 뜯어서 마늘을 넣고 찜은 후 천에 넣고 즙을 짠다. 그리고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장광 위에 올려놓고 하룻밤 이슬을 맞춘 뒤 먹는다. 속이 아프고 더위를 먹은 데는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맛은 굉장히 쓴데, 더욱더 고약한 것은 풀냄새이다. 그러나 그 약효 때문에 지금도 익모초즙을 먹는다.(이포2리)
- 창포물에 머리감기·창포잎 머리에 꽃기 : 마을 강변에 자라는 창포잎을 따서 그것을 삶은 물로 머리를 감는다. 머릿결이 곱고, 향이 좋아 아낙네들이 주로 감는다. 창포잎을 오래 삼지 않고 살짝 데쳐도 물이 푸른색을 띤다. 또한 창포로 머리를 감은 후에

는 창포잎을 머리에 꽂고 동네 나들이를 다닌다.(이포2리)

- 상추이슬로 세수하기 : 단오 아침에 상추잎에 내린 이슬로 세수를 한다. 깨끗한 물이라서 피부가 고와진다고 해서 아낙네들이 많이 한다. 단오 아침은 상추 잎의 이슬뿐만 아니라 단오 전날 배추잎을 따서 장광에 놓고 하룻밤 이슬을 맞힌 후 아침에 그 이슬로 세수를 한다. 이것 역시 미용에 좋기 때문에 많이 한다.(이포2리)
- 그네타기 : 단옷날 그네를 높이 뛰어서 나뭇잎을 물어 오면 그해 여름에 모기가 물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처녀와 아낙네들은 그네를 높이 뜬다. 그네는 이포리 경로당 뒤편 야산에 있는 느티나무에서 탄다.(이포2리)

## 6월

[유두]

- 밀국수 천신 : 6월이면 밀을 첫 수확했기 때문에 그 수확에 대한 의미로 밀국수를 만들어 천신을 하고 동네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다. 안택고사와 마찬가지로 밀국수를 성주·대문·장광 등 곳곳에 놓아 두며 천신을 한 후 이웃과 같이 먹는다. 밀국수는 호박나물을 넣고 콩국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먹는다.(이포2리)

[월내]

- 참외밭고사 : 참외를 처음 수확하기 전에 참외밭에서 밀전과 술을 놓고 참외 풍년을 기원하는 천신을 한다. 여자가 월경을 하면 부정탄다고 해서 남자가 천신을 하고 여자는 참외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이포2리)

## 7월

[칠석]

- 부침개먹기 : 칠석날에는 부침개를 해서 먹는다.
- 칠성맞이 : 칠석날에는 주로 절에 가서 칠성맞이를 한다. 칠성맞이를 하는 이유는 자식의 번성을 기원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쌀, 양초, 돈을 가지고 간다.(이포2리)

[백중]

- 불공·차례 : 백중날은 부모나 자식이 죽은 경우에 이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차례를 지낸다.

[백중장에 가기]

백중날은 일꾼들 생일이자 호미씻이하는 날이다. 이날은 집주인이 일꾼들에게 옷을

새로 선물하고 용돈을 주면, 일꾼들은 백중장에 가서 백중놀이를 한다. 주로 백중장은 이포시장(1, 6일장)에 섰는데, 보통 난장은 3일 간 정도 선다. 이날은 모든 남자들이 백중장에 가기 때문에 명절과도 같다. 백중장에는 씨름판도 벌어지고, 풍악놀이, 투전 등 놀거리와 먹거리가 아주 다양하다. 그래서 일꾼들도 백중장의 난장이 3일 간 서는 만큼 3일 간 논다.

- 씨름대회 : 천양여관 앞이 우전거리인데 예전에 소시장이 크게 섰다. 백중 때 이곳에서 씨름대회를 크게 하였다.

씨름은 석식 파수까지 했다. 1장 파수는 1~5일, 2장 파수는 6~10일, 3장 파수는 11~16일로 15일 전후로 하였다. 씨름의 등급은 애기씨름, 중씨름, 상씨름의 3등급으로 하였으며, 결승전은 '서로 뺀다' (이기는 것을 말함)고 하였다. 최종 승자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를 상품으로 주었다. 씨름대회 때는 풍악놀이도 하였다. 1960년대까지 전승되다 중단되었다.

#### [월내]

- 복달임 : 주로 복날에는 개고기를 잡지만, 강가에서 개를 잡지 말라고 한다. 강물에 사람이 빠져 죽는다는 속신 때문이다.

### 8월

#### [추석]

- 차례 : 추석날에는 설날과 마찬가지로 차례를 지내는데 떡국 대신 송편을 메와 함께 놓는다. 집에 따라서는 송편만 놓기도 한다. 이곳 송편은 크기가 작고(전라도 송편의 반 정도), 송편 소로는 밤, 참깨, 팥, 녹두 등을 넣는다.

### 9월

#### [중양]

- 영릉참배 : 9월에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풍습이 없다. 그러나 이곳 인근에 세종대왕을 모신 능이 있는데, 9월 9일 중양절에 먼 차원에서 참배를 하러 간다.(이포2리)
- 국화떡 해먹기 : 중양절에는 절식으로 국화꽃으로 화전을 부쳐 먹는다. 밀부침개 위에 국화꽃을 예쁘게 놓는다.(이포2리)

### 10월

- 상달 고사 : 10월에는 추수를 모두 끝낸 뒤 집집마다 날을 받아서 고사를 지낸다.

떡은 3~5말 정도의 쌀을 뿜아 팔시루 찰떡을 찌서 술과 함께 고사를 지낸다. 집안의 최고신인 성주님께는 온시루를 올리고 부엌, 장독, 대문 등에는 조금씩 떼어서 가져다 놓는다. 떡을 놓기 전에 대문 앞에 3군데 황토를 갖다 놓고 금줄을 달기도 하는데 이는 부정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요즘도 농사를 짓는 집에서는 추수를 한 뒤 고사를 지내는 집들이 적잖이 남아 있다.

## 11월

[동지]

• 동지팔죽 : 동짓날에는 팔죽을 쑤어 먹는다. 동지가 일찍 드는 것을 애동지라고 하는데, 애동지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는다고 해서 꺼리는 까닭에 팔죽을 쑤어 먹지 않는다.

## 12월

[선달그믐날]

- 묵은세배 : 선달그믐에는 한 해의 안녕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묵은세배를 올린다.
- 불밝히기 : 선달 그믐에는 한 해의 마지막이자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여 집안 곳곳에 불을 밝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거의 모든 집에서 한다. 부엌·방안·대문간 등 집 집 곳곳을 흰히 밝힌다.(이포2리)<sup>30)</sup>

### ■ 설화

#### • 도선 설화

천양최씨가 아래(한강)에서 배를 타고 올라올 때 다른 배는 잘 올라오는데 그가 탄 배는 현 배라서 돛은 찢어지고 잘 올라오지를 못했다. 그러던 중 누군가 배를 태워달라고 하기에 태워 주었는데 그가 도선이었다. 먼저 배들은 도선을 태워 주지 않았다.

그런데 도선이 배를 탄 뒤로는 배가 쏜살같이 올라갔다. 한편 도선이 배 뒤에서 대변을 보는데 뒤에 오는 배가 보니까 고기가 막 몰려 내려가는 것이었다. 도선은 배를 태워준 보답으로 천양최씨의 묘자리를 잡아 주면서 이 길(이포리 길)에 말 굴레소리(차 지나가는 소리)가 나면 이곳을 떠나라고 일러 주었다. 그 뒤로 최씨네는 잘 살게 되었고, 지금은 천양최씨가 다 떠나고 한 가족만이 남아 있다.(장석환, 73세, 이포리, 1993.1.10 조사)

30) 이포2리의 세시풍속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간행한 《경기도세시풍속》에 수록된 조사자료를 보충한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경기도세시풍속》, 2001, pp. 808~822

• 무학대사 설화(1)

옛날에 무학대사가 배를 타고 오는데 뱃사람이 그가 거지인 줄 알고 고기를 잡아 자기네는 좋은 것을 먹고 무학대사에게는 대가리와 콩지만 주었다. 무학대사가 뒤(변)를 본다고 하였는데 (대변이)나오는 것이 모두 고기가 나왔다. 배 주인이 그제야 잘못했다고 빌었다. 천양최씨에게 말굽소리가 나면 이곳을 떠나라고 했는데 나간(떠난) 사람은 모두 잘 되었다. 무학대사가 왔다갔다하는 표시로 꽃은 나무는 잣나무이다. 그런 다음 신록사 터를 잡아 주었다.(상쇠 문경남, 86세, 외평리, 1996.5.12 조사)

• 무학대사 설화(2)

천양최씨가 이포에 터를 잡으려고 서울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무학대사가 타지에서 같이 오게 되었다. 무학대사는 천양최씨에게 산자리(묘자리)를 잡아 주면서 타지방으로 나가야 잘 산다 하여 모두 잘 되고 지금 한 집만 있다.(이중선, 79세, 이포1리, 1996.5.12 조사)

• 무학대사 설화(3)

무학대사가 이곳(천양)에 왔을 때 세 여인이 울고 있었다. 왜 우느냐고 물으니 “우리 집을 헐어서 집이 없어 온다.”고 하였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했더니 천양최씨였다. 그 묘를 무학대사가 잡아주었는데 말굽소리가 나면(발전이 되면) 이곳을 뜨라고 했다. 그 신이 느티나무에 운신하고 있었는데 그 나무를 천양 최씨가 때서 집이 없어졌다고 한다.(송희준, 75세, 경노당 회장, 1988.7.9 조사)

## 5) 양평군 양서면 대심2리의 민속

### ■ 마을 개관

양평군 양서면 대심2리는 ‘상심리’라고도 하는데 그곳에는 상심나무가 있다.

과거에 상심리에는 농토가 별로 없고 집집마다 배가 있었다. 고기잡이는 하지 않았고, 배에 나무를 싣고 가거나 새우젓, 소금 등을 받아다가 팔았다. 원주, 문막 쪽으로 다니기도 하였다. 새우젓, 소금 등은 주로 독섬에서 받아다가 홍천 쪽에 가서 팔았고, 나무는 독섬과 광나루에 가서 팔았다. 장작은 동나무(소나무 가지 친 것을 묶은 것을 동나무 단이라고 함.) 배에 싣고 가서 팔았는데 홍천, 인제 등지에서 나무를 해다 팔았

다. 6·25 이후 중공군이 들어온 뒤 배가 줄어들고 또 차가 생긴 이후 배가 사라졌다.

양평군 양서면 대심2리는 6·25 전에는 50호 정도이고 아랫마을인 대심1리 한여울 마을도 50호 정도였다. 지금은 토박이가 10호도 안 된다. 성씨 배판은 각성바지이며, 성씨 중 김씨네는 임금의 둘째사위인 김참관의 후손으로 인근에 땅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후손들이 떠나고 없다.



상심마을

대심2리는, 즉 상심리는 6·25 전부터 기독교 신자가 많다. 이 마을의 상심교회는 그 역사가 140년 이상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향으로 민속이 일찍 사라져 현재는 전하는 민속이 거의 없다. 심지어 농악도 없다고 한다.

양서면 대심리(현 2리)에서는 과거에 양평장과 양수리장을 보았다. 양평장은 3, 8일 장으로 대심리에서 20리였고, 양수리장은 15리였는데 양평장이 제일 컸다.

#### ■ 나무와 생활

대심2리에 있는 상심나무를 중심으로 올라가는 길의 나무를 살펴 보면, 상심나무→한여울(대심1리, 대심2리의 아랫동네)→수청리→검단내→마재(두물머리와 내왕)→숙마구미(광주댐 막은 곳 위)→덕소(팔당댐)→뫼나무→광나무→뚝섬→한강→마포→염창(옹기가 많았음.)나무가 있고, 내려가는 뱃길은 다루레기(옥천면)→양평(큰 나무)→이포(큰 나무)→여주 등이 있다. 때로는 문막까지 갔다고 한다.

상심마을 사람들은 서우에서 소금, 새우젓을 가지고 가서 팔아 곡식을 바꾸어 장마가 지면 내려왔다. 봄에 가서 장마가 지면 내려왔는데 기간은 몇 달씩 걸리기도 하였다. 영월 쪽은 때로 엮어 나무를 팔러 갔고, 이 때(뗏목)를 광나무에서 풀었는데 그곳에는 큰 종이공장이 있기 때문이었다.

여정은 대심리 상심나무에서 염창, 뚝섬, 광나무까지는 대개 왕복 일주일이 걸리는데, 순풍이 불면 하루만에 가기도 한다. 주로 뚝섬까지 많이 왕래하였고, 염창에는 옹기를 만들기 때문에 솔가지를 많이 해서 가지고 갔다. 염창까지 바람이 좋으면 올 때 하루가 걸리고, 갈 때는 바람에 따라 3?4일 걸렸다. 올 때는 짐을 비우고 빈 배로 오기 때문에 하루만에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배에 싣고 가서 파는 물건은 쪽고리와 오이썰 등이다. 쪽고리는 나무 장작 한 단으로

4개씩 하나로 묶은 것이다. 오이썰은 말죽거리에 오이가 많이 생산되어 잡목으로 썰을 만들어 팔았다. 토마토썰도 팔았다. 올 때는 예전에는 소금 등을 사서 싣고 왔지만 이 마을 제보자 최옥현씨 때는 소금이 있었기 때문에 빈 배로 오는 때가 많았다고 한다.

배 한 척의 크기는 기차 한 고(庫)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대략 30m 정도 되었다. 배는 3인이 다니는 세손배, 둘이 다니는 두손배, 혼자 다니는 외손배가 있다.

뱃일은 정월 보름께면 얼음이 녹기 시작하므로 2월 그믐께 뱃일을 시작했다. 옛날에는 강에 어름이 석 자씩이나 얼었다.

### ■ 어로생활

남한강에 서식하는 물고기는 그 종류가 많았다. 예를 들면 잉어, 붕어, 쏘가리, 뱀장어 등이 많다. 복은 없었는데 팔당댐 때문에 복이 못 올라오기 때문이다.

남한강의 어업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3월 : 날씨가 추워 어로행위를 하지 않음.
- 3~4, 5월 : 모래무지, 참마지, 눈치, 잉어(잉어는 5월에 산란기라 못 잡게 함.)
- 6~7월 : 붕어
- 8월 : 동자게(메기 비슷한 노란색의 고기), 메기, 쏘가리
- 9~10월 : 눈치
- 11월 : 잉어(약간)
- 12월 : 날씨가 추워져 고기를 잡지 않음.

그 외 뱀장어는 여름에 주낙낚시로 잡음.

댐이 생긴 뒤 옛날처럼 얼음이 두껍게 얼지 않고 얇게 얼어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는다. 댐을 막기 전에는 고기가 많았고 맛도 좋았다. 물이 흘러가야 하는데 담수가 되어 고기 맛이 없어졌다고 한다, 산이 험려 토사가 많이 쌓여 강이 메꾸어지게 되어 그런 것이다. 10년 전 양평군어민회에서 치어를 강에 풀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또 예전에는 강물을 떠다 독에 두면 2?3일이 지나도 장구벌레가 생기지 않았는데 지금은 오염이 많이 되었다.

### ■ 민간신앙

- 뱃고사 : 정월 보름께 새벽에 배에서 뱃고사를 지냈다. 제물은 팔시루떡, 복어, 막걸리 등이며 고사상을 차려 놓고 절을 한 뒤 막걸리를 배 주위에 뿌린다.
- 어로금기 : 안개 낀 날에는 배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 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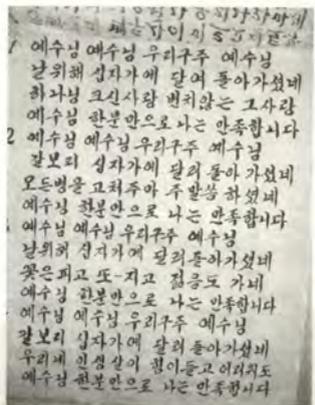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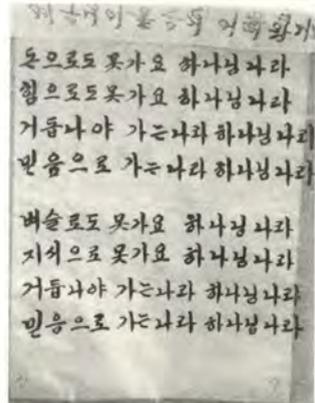
• 노래집 : 대심2리 마을회관에는 노래 가사를 필사한 《노래집》이 소장되어 있다. 이 가사집은 찬송가와 대중가요, 동요 등의 노랫말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글쓴이는 김종한(80) 장로라고 한다. 그 중 관심을 끄는 노랫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1. 예수님 예수님 우리구주 예수님  
 날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하나님 크신사랑 변치않는 그사랑  
 예수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2. 예수님 예수님 우리구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모든병을 고쳐주마 주 말씀하셨네  
 예수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3. 예수님 예수님 우리구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우리네 인생살이 힘이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사례 2〉

1. 세상만사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높은집 문전옥답도  
 우리한번죽으면 일장이춘몽
  
2. 인생백년산대도 슬픈탄식뿐  
 우리생명무언가 운무로구나  
 유타됨은그림자 지남갔으니  
 부생낭사헛되고 또헛되구나



3. 흥안소년미인들이 자랑치말고  
영웅호걸열사들이 뽑내지마라  
유수같은세월은 널재촉하고  
저정막한공동묘지 널기다린다
4. 요단강물거스릴 용사업으며  
서산락일지는해 막을자있나  
하루가고이틀가 흥안이늪어  
슬프도다죽는길 뉘막을소나

위의 사례에서 이들 노래는 고풍스런 가사체나 창가체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는 노래로서 기독교적 내용을 포교하고 있다.

## 6) 양평군 양서면 양수5리의 민속

### ■ 마을 개관

양수리(兩水里)는 ‘두물머리’의 한자어로 남한강과 북한강의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이라는 뜻인데 예전의 두물머리는 별도로 있었다. 두물머리 나루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원래의 두물머리이며 현재 양수5리에 속한다. 두물머리는 과거에 약자로 ‘두머리’라고 하였다. 현재 양수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돌더미’라고 하며 예전에 그곳에는 몇 가구밖에 살지 않았다

두물머리나루터는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마을에서 강 건너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귀실마을로 건너가던 나루터이자 남한강 수운의 하항(河港)이었다.

양수리는 전체가 5개리로 대략 700세대 정도이다. 주민들은 대개 외지인들이 많아 토박이는 10가구도 채 안 된다. 두물머리 일대는 남한강의 기항지인 동시에 육로상의 교통의 요지로, 용문에서 두물머리까지 40리, 홍천에서는 80리 길로 아침에 출발하여 이곳에 도착하면 해가 넘어갔다. 그래서 이곳은 하루씩 묵어가는 곳이어서 예전에 기생이 많았다.



두물머리 산책로

성씨 배판으로 '두머리'에는 강릉최씨네가 많이 살았고, '돌터미'에는 손씨네가 많이 거주하였다. 1972년도 초반까지 40여 가구가 있었는데 현재 '두머리'만 22가구이다.

1970년대 두머리가 40여 가구일 때 이 동네사람들은 거의 뱃사람이었다. 당시 큰 돛단배(거룻배)를 가진 집이 7~8집 있었는데 이들 배가 3인용 또는 2인용 배이기 때문에 이 동네사람이 거의 뱃일에 종사한 셈이다. 그러다가 1972년 당시 장마에 집이 떠 내려가고 1973년 팔당댐 완공 후 별판이 침수되면서 하천부지로 수용되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은 원주민들은 거의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 대신 서울 등 외지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두물머리는 거의 외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주민은 3가구 정도이다.

생업으로 과거에는 보리, 조 농사를 지었고, 황포돛단배로 뿔감이나 물자를 실어 나르는 일을 하였다. 두머리 강 건너 귀여리에는 참외, 수박 등 밭작물을 재배하였는데 이를 실어다가 양수리에 내다 팔았다. 또 두물머리에는 산이 없으므로 귀여리에서 나무를 해왔다. 1960년대는 밭농사로 김장채소를 심었는데 팔당댐 완공 후 별판이 침수되어 하천부지로 수용되었다. 현재 농사는 거의 없고 외지인 몇 가구가 농사를 짓는 정도이다.

현재 두물머리 주변에는 마을 수호신인 도당할아버지 신목을 중심으로 두물머리나루터가 관광지화 되어 있다. 양수리 세미원과 두물머리 주변에 29,000평 규모로 조성된 '양평 연꽃단지', 두물머리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강마을 특유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도당할아버지 신목



두물머리 나루터 표지석

## ■ 나루와 생활

두물머리나루는 과거에 남한강 수운의 마지막 정착지로서 크게 번창했던 곳이다. 원래의 위치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쪽자도(떠들어온 섬이라고 함) 부근에 있었다. 현재 이곳은 길이 막혀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두물머리나루는 주변의 산판에서 생산된 땔감을 중심으로 운반하였다. 예전에 땔목, 화목은 겨울철에 해놓는데 겨울이라 강물이 적어 배가 내려오기 힘들므로 조금씩 내려오다가 목계나 그 밑에 와서 대놓는다. 그러다가 여름 장마로 물이 풍부해지면 화목을 싣고 내려온다. 장작은 쪽고리라 하여 4개 또는, 6개, 8개씩 묶어 한 아름씩 만들어 배에 싣고 독섬이나 마포로 내려가서 목상들에게 팔았다.

강원도 영월과 춘천 쪽에서 내려오는 배는 능내 정약용 묘소 뒤쪽 두명소 쪽에 정박하였고 남한강 쪽은 두물머리 나루터에 정박하였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이면 배가 출발하였는데, 이는 서울로 내려가는 배 중에는 당시 불법으로 화목(火木)을 싣고 가는 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허가받은 배의 화목에는 인두로 도장을 찍어서 표시하였다. 그런데 미사리 쪽, 팔당대교 밑 당쟁이가 수심이 얕아 간신히 배가 하나 빠져 나갈 정도이므로 불법인 배는 해가 있을 때 나가 덕소에 배를 대놓고 밤에 가고, 허가받은 배는 낮에 일찍 독섬으로 갔다. 상인의 요청에 따라 마포, 행주까지 갔다. 올라올 때 배에는 마포에서 새우젓을 싣고 왔다.

뚝을 이용하는 배는 서울에서 서풍이 불 때 떠났다. 짐을 많이 실은 때는 가마니를 대고 싣고 가다가 파도가 치면 가마니를 펼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였다. 독섬에서 배를 타고 올라올 때 마포람이 불어 바람이 좋으면 두물머리까지 대략 5~6시간이 걸

린다. 가다보면 여울이 있는데 여울에서는 배를 끌고 올라와야 했다.

남한강에서 물자를 운송하는 배의 종류는 대체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곧, 3인 1조의 세손거루, 2인 1조의 두손거루, 1인배의 엇거루가 있다. 세손거루와 두손거루는 장사 거룻배로 모두 돛을 단 배이다. 세손거루는 큰 돛단배로 GMC 자동차 2대 이상 실을 수 있는 규모이고, 두손거루는 물자를 많이 실을 때 배를 붙여서(연결하여) 싣는다. 엇거루는 돛을 안 단 배로 개인용 배이다 장마 때 물에 떠내려오는 나무를 건져내고, 심부름을 하거나 돛단배의 하역 역할을 하였다. 나룻배, 곧 도선배는 엇거루와 비슷하며 말, 소 등을 실어 나르며 농사를 지을 때 이용하였다.

나룻배는 귀여리와 내왕시 이용하였다. 두물머리에는 산이 없으므로 나룻배를 이용하여 귀여리에 나무를 하러 갔고, 귀여리에서는 참외, 수박 등 발작물을 양수리장에 내다 팔 때 이용하였다. 나룻배의 운영은 두물머리 사람들이 모두 뱃사람이므로 돌아가며 하다가 1980년대에는 허가를 받아 운영하였다.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광복 이전에는 추곡을 받았는데 봄에는 보리 한 말, 가을 추수 때는 벼 한 말을 받았다. 그러다가 1995년 이전에는 250원에서 400원까지 받았다.

1965년경까지 짐 실은 돛단배가 다녔고, 도선배는 1995년까지 있었다. 양수5리 이장 이규현이 1995년 나룻배(도선업)를 그만 두면서 1998년, 99년경 우경선의 제작으로 황포돛단배를 재현하였다.

## ■ 어로생활

### • 어촌계

두물머리마을의 어촌계원은 18명으로 현재 양서면 어촌계에 소속되어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허가권을 가진 사람만이 어로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구역에서는 모터를 단 배를 쓸 수 없고 무동력으로 노를 저어 어로작업을 한다. 원래 양평어촌계 소속이었는데 따로 나와 허가권만 가지고 있다가 1985년경 상수원보호구역이 별도로 갈라지면서 양서면 어촌계가 구성된 것이다. 어촌계의 회비는 정기적으로 내지는 않고 필요할 때 걷는다.

### • 어로작업

1973년 팔당댐이 건설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강을 터전으로 한 다양한 낚시 풍속이 있었다. 즉, 탬질(첼낚)와 물이계, 물판 등이 그것이다.

전통 낚시인 '탬질' 또는 '첼낚'은 견지낚시로, 견지는 얼레와 같은 모양으로 아낙들

이 실을 감을 때 사용하던 도구로 이를 낚싯대로 이용한 것이다. 견지낚싯대는 요즘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져 나오지만 예전에는 대나무로 만들었고, 낚싯줄은 고래심줄과 칠줄을 사용했으며, 손잡이는 요즘 나오는 것보다 짧았다. 낚싯줄에 거는 바늘도 세 가닥으로 된 삼봉과 한 가닥으로 된 외봉 등 다양하다.

견지낚시는 사시사철 가능하고 낚시 형태도 다양해서 바위에 앉아 하기도 하고, 낚시질을 하기 위하여 만든 배인 '낙거루'를 타고 강에 나가서도 하지만, 직접 물속에 뛰어들어가 팔팔 뛰는 강고기를 낚아내는 여울 견지가 가장 재미있었다고 한다. 바위 밑에 있는 고기는 물에 들어가 작살로 찍어 올리기도 했다. 양평에서 많이 잡히는 고기는 쏘가리, 눈치, 피라미, 통가리, 살치 등이 있었다.

몰이계는 겨울철 낚시풍속으로 5~15명의 계원으로 구성되며 우두머리를 '영좌'라 한다. 몰이는 밤에 하는데, 저녁 7, 8시경 영좌의 지시를 받은 구성원들이 '쓰레'라는 도구로 사방에 얼음을 뚫고 그물을 뗏가지로 밀어넣고 반대편에서 끌어 그물망을 쳐놓으면, 물이꾼들이 커다란 '몰이토막'에 새끼를 묶어 네 명이 얼음을 두드리며 고기를 몰아 그물망에 밀어넣어 건져 올리는 작업을 밤새 반복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어로작업은 무조건 닦치는 대로 고기를 잡아올리는 작업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규칙을 지키는 절제된 작업이었고, 낚시터도 몇몇 곳을 지정하여 최대한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진행되었다.

물판은 강물을 1000~2000평 정도 그물로 둘러쳐서 막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낚시나 작살질을 하게 하는 것이다. 주로 물판에서는 잉어를 많이 잡았는데 낚시꾼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주인이 판결을 내려주곤 하였다. 가령, 낚시에 걸린 물고기가 작살에 찢려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면 서로 자기 것이라 싸움이 나곤 했는데, 그대는 낚시꾼의 것이라고 판결을 내려준다. 작살에 이미 찢린 고기가 낚시바늘을 물수는 없기 때문이다. 양평 강변지역의 물판은 1960년 전후 하여 사라졌다.<sup>31)</sup>

대개 강의 고기는 음력 보름을 기점으로 달이 밝을 때는 고기가 안 나온다. 날이 따뜻한 절기에는 고기가 위로 뜨고 추운 계절에는 고기가 가라앉는다. 그러므로 고기가 얇게 뜰 때 스티로폼을 달아서 뜰그물을 사용한다.

어로 현황을 보면, 근래에 불룩이, 베쓰 등 외국종을 강에 넣은 뒤 이들 고기들이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또 번식력도 강하기 때문에 토종 고기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이들 외래종을 1kg 5000원씩 수매하고 있다.

어종 고갈의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팔당댐으로 인한 것으로 장어 등과 같은 물고기가 사라졌다. 또 배가 다녀야 물을 흔들어주기 때문에 물이 살아나 수질이 보존되는데

31) 이정재, <남한강 수운의 전통과 민속·장터와 별신판을 중심으로>(2002년도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 pp.17~18

그렇지 못하다. 팔당댐(1973) 건설 전만 해도 이곳 사람들은 강물을 길어 먹고 살 정도로 물이 깨끗하였다.

## ■ 장시

두물머리에서는 장은 양수리장을 본다. 양수리장은 5일장으로 매달 1일과 6일에 장이 선다. 인근의 장으로는 광주 분원장과 마석장이 크다. 양수리장과 분원장, 마석장, 흥천장 등은 우시장이 크게 섰다. 두물머리 마을에서는 양수리장과 분원장을 보았는데 주로 양수리장을 이용하였다.

## ■ 향토음식

### • 해장떡

과거 뱃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 두물머리나루에는 해장떡이 유명하였다. 해장떡은 인절미의 하나로 보통 떡보다는 두툼하고 넓적하다. 해장떡을 만드는 방법은 먼저 팔을 미지근한 물에 담가 껍질을 벗겨낸다. 그 다음 거피한 팔을 살짝 삶아낸 뒤 찐다. 이렇게 거피하여 찐 팔을 인절미 위에 붙인 것으로 된장국에 넣어 먹는다. 이를 '해장떡'이라고 하여 저녁 때도 먹었지만 주로 아침, 새벽에 많이 먹었다. 해장떡은 시장한 뱃사람들에게는 든든한 요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두물머리나루 길목에 해장떡집이 있었으며 근래에 이를 재현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해장떡은 목계나루에서도 조사된 바 있어 뱃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특별한 향토음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 ■ 민간신앙

### • 도당제

도당제는 마을의 수호신인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에게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동제이다.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의 신체는 오래된 느티나무이다. 도당할아버지 나무는 현재 그대로 있으나 도당할머니 나무는 사라지고 없다. 도당할아버지 나무 밑에는 돌로 된 제단이 놓여 있다. 원래는 나무로 만든 제상이었는데 1972년 장마 때 제상이 떠 내려가게 되자 새마을사업 때 도당할아버지 신목이 있는 곳에 축대를 쌓고 넓적한 돌을 을 맞대어 제단을 만든 것이다.

두물머리 도당제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8월 그믐날 두물머리에 사는 아낙네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남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데, 여자들의 경도 부정을 가리기 위한 회의이기 때문이다. 이날 부정이 없는 집을 가려 당주를 정하는데 당주는 남자이다. 이곳의 도당제는 제관이 별도로 없고 당주 혼자서 모든 일을 다한다. 당주로 정해진 집에서는 무속인에게 가서 택일을 한다. 택일한 후 동네에 해산할 사람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보낸다. 현재 도당제는 9월 초이틀 날로 날을 정해서 도당제를 지내고 있다. 제일을 고정시킨 것은 이곳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 부정을 가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당주는 9월 초하룻날부터 새우젓 등 비린 음식을 먹지 않고, 부부관계를 금하고, 강물에 가서 찬물에 목욕제한다. 그리고 이날 당주집과 도당할아버지 나무에 금줄을 친다.

제비는 당주가 정해진 뒤 마을기금으로 충당하거나 부족할 때는 동네의 각 집에서 돈이나 쌀을 추렴한다. 그런데 부정이 있는 집에서는 제비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초상을 치른 집에서는 당제에 못 가며 제가 끝난 뒤 그 음식을 먹는다.

술은 당주가 도당할아버지 나무 옆에 세워진 돌 사이에 '조래 잡는다'고 하여 조그만 항아리에 밥을 식혀식으로 물을 자작자작하게 해서 놓고 그 위에 주저리를 씌워놓는다. 이 술은 당제날 걸러서 제주로 쓴다.

제물로 예전에는 소를 잡았는데 지금은 소머리를 쓴다. 다른 곳과 달리 돼지는 쓰지 않는다. 당제 때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 음식은 같은 제상에 차리되, 좌우로 구분하여 왼쪽에는 도당할아버지, 오른쪽에는 도당할머니 제수를 각각 따로 놓는다. 즉, 같은 제수를 2개씩 놓은 것이다. 제물은 소머리, 찰시루떡, 소고기적, 팔·콩·조, 통후추, 갈랍, 소고기적, 숙주나물, 북어찜, 사과·대추·감·밤·배 등이다. 숙주나물은 익히고, 후추·조·콩·팥은 생으로 그릇에 담아 창호지로 싸서 놓고, 밤·대추·감은 생것으로 쓴다. 찰시루떡 위에는 통북어를 실로 묶어서 놓고 그 옆에 정한수도 놓는다. 소머리와 시루떡은 한 개씩만 놓는다.

당제는 밤 11시경에 당주 혼자 지내는데 당주 부부가 참석한다. 제복은 원래 흰 두루마기를 입고 지냈으나 요즘은 도포를 입고 지낸다. 당제를 지내고 나면 대략 1시경이 된다. 제를 지낸 뒤에는 소머리의 볼뼈를 빼어 통북어와 함께 실로 묶고 조래 잡았던 벗짚(주저리)을 같이 묶어서 도당할아버지 잡수시라고 나뭇가지에 묶어 놓는다. 그런 다음 새벽 2시를 전후하여 노구메를 집에서 지어와 당주가 진메를 올리는 제사를 지낸다.

당제가 모두 끝나면 떡·과일 등 제물을 조금씩 종이에 싸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줄에게 나누어 준다. 제를 지낸 뒤 도당할아버지 나무 있는 곳에서 소머리국을 끓여 동네 주민들이 함께 먹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있는 집에는 소머리국을 갖다 드린다.

과거에는 도당곳을 하면서 당제를 지냈으나 도당곳은 광복 이전에 전승이 끊어졌다.

• 도당나무와 관련된 금기

①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의 신체는 오래된 느티나무 신목이다. 도당할아버지 나무는 현재 그대로 있으나 도당할머니 나무는 사라지고 없다.

과거에 도당할머니 신목은 장정 7인이 팔을 벌려 두를 정도로 컸으며, 혹이 크게 튀어나오고 속이 비어 있는 나무였다. 그래서 아이들이 밤에 바람이 불어 추우면 그 속에 들어가 있곤 하였다. 1966년경 팔당댐을 막는 바람에 침수가 되자 이 나무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잘라서 팔아버렸다. 그런데 그해 도당할머니 나무를 벤 사람과 증개 붙인 사람, 나무를 산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한다.

② 두물머리에서는 도당할아버지 나무를 신성하게 여겨 초상이 났을 때 상여는 도당할아버지 나무 위로는 지나가지 않고 도당할아버지 나무 밑으로 지나간다.

옛날에 선비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도당할아버지 나무 앞을 지나갈 때는 말에서 내려서 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말의 말굽이 붙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는 소를 잡아서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③ 도당나무는 매우 크고 무성한 고목이어서 웬만한 소나기가 와도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또 아이들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 새알을 갖고 줄기로 내려와도 나무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 그래서 두물머리 아이들은 이곳을 놀이터로 자주 이용하고 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놀면서 신성한 도당나무를 함부로 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도당나무에 오줌 누면 고추가 비뚤어진다.'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곤 하였다.

④ 도당나무는 가랑잎 하나라도 굵어다 때지 않는다. 도당나무의 가랑잎은 모았다가 당제 지낼 때 황덕불을 해놓는다.

⑤ 두물머리에는 뱀이 거의 없는데, 간혹 장마 때 떠내려 오는 적은 있었다.

어느 해인가 댐(팔당댐)이 건설되기 전 1960년대 이전에는 교통이 불편하여 당시 기차로 통행하던 시절이었다. 제보자(이규현)가 초등학교 여름 방학 때였는데, 기독교인들이 느티나무(도당나무) 밑에 가운데가 구멍 뚫린 몽골텐트를 쳤다. 텐트 안에서는 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뛰고 시끌벅적하였다. 그런데 굵은 뱀이 텐트 위에 꼬아리를 틀고 있었다. 이를 본 교인들이 놀라서 아우성을 치고 모두 도망간 것을 본 일이 있다.

⑥ 도당할머니 나무 있는 곳에서는 개를 못 잡게 했는데 서울 사람들이 그곳에서 개를 잡아먹었다. 제보자(이규현)가 어렸을 때 개고기나 얻어먹을까 하고 그곳에 갔다. 그런데 개고기를 먹은 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서울로 이송하였는데 죽었다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 용왕고사

배를 진수할 때 용왕신에게 드리는 고사는 다음과 같다.

〈용왕고사〉

유세차(떼사공, 하주) 감소고우  
불계부정 택일하여 흥동백서 좌포우혜  
외적내통 진설하고 소지발원 하나이다  
동해갑을 용왕신 남방병정 용왕신  
서방경신 용왕신 북방임계 용왕신  
소례로 드린정성 대례로 받으시고  
여울여울 굽이 지나 무사하강  
용왕신께 비나이다

• 모탕고사

모탕고사는 배를 지을 때 드리는 고사이다.

〈모탕고사〉

(성씨) 편수가 배를 지을려고  
모탕을 놓고 고사를 드립니다.  
차린 것은 적사오나 소례를 대례로 받으시고  
일이 끝날 때까지 무사이 되게 하옵소서  
이 터전에 토지지신께 비나이다<sup>32)</sup>

■ 세시풍속

1월

• 설

[설날]

설날 아침에는 떡국차례를 지낸 뒤 세배를 하고 아침식사를 한 뒤 성모를 간다.

• 차례·차례상 : 설날의 차례는 떡국차례이다. 차례상의 음식은 제사음식과 거의 비

32) 손낙기 편수, 《漢江의 물길과 장사 거룻배와 사공》 프린트본

슷한데 떡국만 올리고 메는 올리지 않는다.

#### [초사흔날]

• 뱃고사 : 정월 초사흔날 뱃일을 하는 집에서는 팔시루떡을 하여 북어와 실을 놓고, 막걸리와 함께 배에 차려놓고 절을 하고 기원한다. 축원이 끝나면 떡을 조금씩 떼어서 노 젓는 곳과 돛대 있는 곳, 배 바닥 등에 떼어서 버린다. 술도 배의 군데군데 붓는다. 배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뱃고사를 지낸다.

#### [정초]

• 지신밟기 : 정초부터 보름까지 동네 각 집을 돌아다니며 지신밟기를 하였다. 현재 정초 농악은 하지 않는다.

#### [열나흔날]

• 보름밥 훑쳐먹기 : 보름 전날 밤새 잠을 안 자고 화투놀이 등을 하면서 놀다가 밤에 남의 집에 가서 밥을 훑쳐 먹는다. 그래서 집집마다 일부로 밥솥에 밥을 담아놓았다.

#### [보름날]

• 어부심 : 정월 보름날 저녁에 바가지에 오곡밥과 시레기, 고사리 등 보름나물을 한 데 버무려서 강에 갖다가 끼었는데 이를 어부심이라 한다. 또 백설기를 찌서 시루째 강에 가지고 가서 빌고 떡은 떼어 던져놓기도 한다.

• 아홉번 먹고 아홉번 나무하기 : 이날은 무엇이든 아홉 번 해야 좋다고 하여 밥을 아홉 번 먹고 나무도 아홉 번 한다고 한다.

• 옷놀이 : 예전에는 마을 단위로 보름날 옷놀이를 하였는데, 현재도 마을단위로 척사대회를 한다. 양수리 돌담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척사대회를 하는데 별도의 입장권은 없고 경품으로 전자제품을 준다. 옷은 장작옷을 깎아서 만든다.

• 액막이 : 조짚으로 해를 만들어 나이 수만큼 묶어 보름달이 뜨기 직전에 불을 붙이고 도당할아버지나무(느티나무) 뒤에서 액막이를 한다. 액막이는 남녀노소 모두 하는데 노인들은 손주들을 데리고 “달님 달님 절합니다. 달님 달님 절합니다.……” 하면서 액막이를 한다.

• 깡통돌리기 : 조짚에 불을 붙이고 액막이를 한 뒤 극성맞은 애들은 깡통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그 속에 나무를 잘게 잘라서 불을 붙이고 빙글빙글 돌리다가 나중에는 불쌈을 한다.

• 쥐불농기 : 묵은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것을 쥐불 놓는다고 하는데 이는 해충을 죽이기 위한 것이다.

• 딱충놀이 : 개나리가 지나 북나무를 한 뼘 길이로 자르고 속을 뚫어 그곳에 딱 맞게 깎아 밀착되게 하여 쭈셔서 길이 반질반질 나게 한다. 그리고 공책 종이를 씹어 뭉쳐지면 구멍 한 쪽을 묶어 또 한 쪽을 씹어 대고 한 쪽을 밀면 “땅!” 하고 나간다. 종이를 가지고 다니며 씹으면서 총알을 만들어 얼굴에도 쏘곤 하면서 놀았다.

• 그밖에 제기차기와 자치기도 하였다.

## 2월 · 3월

2월과 3월에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 4월

[초파일]

초파일날 불교를 믿는 사람은 절에 간다. 초파일부터 단오까지는 행사가 많았다. 이때부터 농악대가 동네 각 집을 돌아다니며 지신밟기를 하였다.

## 5월

[단오]

과거에 단오는 큰 명절로 쇠었다. 이날 도당에서 도당굿을 크게 하였고, 씨름을 하고 그네를 뛰었다.

• 씨름 : 단옷날 두물머리에 그네를 매어 뛰고, 씨름판은 양수리시장에서 열렸다.

• 그네 : 1960년대 초반에는 청년들이 새끼를 겹겹이 꼬아 엮어 도당할머니 나무(현재 없음)에 매어 주었는데, 이 나무는 언덕으로 뺏어나가 있었으며 그 밑으로는 비탈길이 있었다. 그래서 그네를 뛰면 낭떠러지 강쪽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전율을 느끼면서도 재미가 있었다. 그네는 남녀노소 모두 뛰었다.

• 지신밟기 : 4월 초파일부터 시작하여 단오 때까지 농악대가 집집마다 다니며 농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지신밟기를 하였다. 주인집에서는 답례로 쌀 등을 주었다.

## 6월

6월에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 7월

### [백중]

• 씨름 : 백중에는 양수리에 백중장이 크게 섰으며 씨름판이 크게 벌어졌다. 씨름은 아이들이 거루는 애기씨름, 청소년의 중씨름, 어른들의 상씨름으로 구분하였고, 각처에서 씨름꾼들이 모여들었다. 승부는 3판 양승제로 이긴 사람이 계속 올라가는 토너먼트식의 승자진출전으로 하였다. 이곳 씨름의 형태는 왼씨름으로 살바를 손에 잡고 목을 상대방의 왼쪽에 대고 하였다. 장원에게는 상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주었고, 그밖에 광복 등이 있었다.

• 농악 : 백중장 때 양수리 돌터미에서 농악대를 꾸며 놀았다.

### [월내]

• 서리 : 두물머리에서는 광주 쪽에 참외와 수박이 많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가 서리를 하곤 하였다. 한 사람은 배를 대고 기다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곳에 백사장이 있어 옷을 벗고 팬티만 입고 기어가서 수박을 담요나 포대기로 싸서 배에 싣고 왔다. 서리한 참외와 수박은 도당할아버지 느티나무 있는 곳에서 먹고 놀았다. 또 광주 쪽에 배 과수원이 많아 배서리를 많이 하였다. 날이 좋은 날에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안 가고 주로 비 많이 오는 날에 하였는데, 이런 날에는 주인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배 2~3 자루를 서리해서 조밭에 감춤했다가 먹었으며, 주인에게 들켰을 때는 두물머리로 오지 않고 다른 동네로 갔다가 몰래 들어오기도 하였다.

## 8월

### [추석]

• 송편차레 : 추석에는 송편차레라 하여 차레상에 송편을 올리고 메는 올리지 않는다. 차레를 지내고 아침식사를 한 뒤 성묘를 한다.

### [그믐날]

• 도당제 당주 선정 : 도당제는 마을의 수호신인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에게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동제이다. 이 당제의 당주를 뽑기 위한 회의를 8월 그믐날에 하는데 여기에는 아낙네들만이 참여한다. 남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여자들의 정도 부정을 가리기 위한 회의이기 때문이다. 이날 부정이 없는 집을 가려 당주를 정하는데 당주는 남자이다.

## 9월

### [도당제]

• 도당제 : 8월 그믐날 도당제의 당주를 선정한 뒤 음력 9월 초이튿날 마을의 수호신인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에게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동제를 지낸다. 원래는 날을 받아 지냈으나 두물머리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 부정을 가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정화시킨 것이다.

제물로 예전에는 소를 잡았는데 지금은 소머리를 쓴다. 당제 때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 음식은 같은 제상에 차리되 같은 제수를 2개씩 장만하여 각각 진설한다. 당제는 밤 11시경에 당주 혼자 지내는데 당주 부부가 참석한다. 당제가 끝난 뒤 소머리국을 끓여 동네 주민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

과거에는 도당굿을 하면서 당제를 지냈으나 도당굿은 광복 이전에 전승이 끊어졌다.

## 9월

9월의 세시행사는 조사된 것이 없다.

## 10월

• 상달 고사 : 10월 상달에는 집집마다 고사떡을 해서 고사를 지낸다. 10월에 날을 받아 팔시루떡을 찌는데 안시루와 바깥시루 2개를 찌다. 안시루는 작은 것으로 하고 바깥시루는 큰 것으로 한다. 안시루는 집안 곳곳에 있다고 믿는 가신에게 바치는 시루이다. 떡 위에는 정화수를 한 대접 올려놓는다.

제일 먼저 안시루를 안방 아랫목에 놓고 조금 있다가 그 시루를 상에 받쳐서 대청, 부엌, 장독, 외양간 그리고 대문을 열고 도당을 향해서 느티나무 쪽으로 놓는 등 시루를 물려가면서 놓는다. 큰 시루, 곧 바깥시루의 떡은 잘라서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큰 시루 하나만을 할 때는 접시에 따로 담아서 집안 곳곳에 놓았다가 한참 지나서 서너 군데 떼어 던져놓고 나머지는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두물머리에서는 지금도 고사떡을 하는 집이 적잖이 있다.

## 11월

### [동지]

• 동지팔죽 동지가 일찍 드는 때를 애동지라 하는데 이때는 팔죽을 쑤지 않고 주로 노동지에 팔죽을 쑤어 먹는다.

## 12월

[양력 1월 1일]

• 두물머리 해돋이 축제 : 2004년 양력 1월 1일 두물머리 마을에서 당산나무 기원제와 용왕제로 구성, 해돋이축제를 시작하였다. 이 축제는 3회까지 두물머리 마을에서 개최하다가 이후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제6회 해돋이축제를 개최한 바 있다.

## 7) 광주시 남종면 수청1리의 민속

### ■ 마을 개관

광주시 남종면 수청1리는 청탄마을과 개목마을 2개의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다. 청탄마을은 큰청탄과 작은청탄으로 나뉘는데 큰청탄은 수청1리, 작은청탄은 수청2리이다. 개목마을은 큰청탄마을에서 외마로 떨어져 있다. 청탄마을 강 건너는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반장리)로 도선배로 왕래한다.

‘청탄(靑灘)’은 ‘물푸레 여울’이라고 하는데 이는 곧, ‘물 푸른 여울’이란 뜻으로 푸를 청(靑), 여울 탄(灘) 자가 합쳐져서 된 말이다. 개목마을은 한자어로 개 구(狗) 자, 목항(項) 자를 써서 구항동(狗項洞)으로 불린다. 개목마을에는 셋강이 있었고 돌다리를 놓고 대하섬을 건너다녔다. 그 안은 저수지 모양으로, 개 안의 목을 건너다닌다고 하여 물가 포(浦), 목 항(項) 자를 써서 ‘포항(浦項)’이라고도 한다. 개목마을 앞에 있는 대하섬은 행정구역상 양평군 강하면 운심2리에 속하고 큰청탄의 앞에 있는 거북섬은 대심리에 속한다.

큰청탄 마을은 70호 정도이나 실제 사는 집은 45가구 정도이다. 이 마을은 ‘엄씨터전’이라 하여 입향조는 엄씨이고, 그 다음이 독립운동가 여운형(呂運亨, 1886~1947) 집안인 함양여씨(咸陽呂氏)이며, 이어 경주 정씨가 많이 살았으나, 지금은 각성바지인데 강릉김씨가 많은 편이다. 이 마을은 토박이가 35가구일 정도로 많이 살고 있다. 구항동은 원주민이 몇 집 안 된다.



청탄마을 전경



청탄나루의 수청호



청탄나루의 도선배

큰청탄마을의 가구 수는 호수로는 70호이나 실제 거주하는 가구 수는 45가구 정도이다. 생업으로 6·25 전에 이 마을에는 3인용 큰배에서 뱃일을 하는 사람이 많았고 자기 배를 가진 사람도 서 너댓 집 있었다. 거룻배(황포돛배)는 6·25 이후에 사라지고 그 후에는 외동이(1인배)만 다녔다.

농사는 벼농사와 밭작물로 호밀농사를 지었는데, 6·25 때까지 호밀농사를 많이 지었다. 이곳은 갯바닥이라 호밀농사만이 잘 되었다. 호밀은 먹기도 하고 사료로도 사용하였다.

이 마을의 특징적인 것은 청탄나루의 수청호이다. 이 나루는 현재 살아있는 나루로서 동력선 나룻배가 강 건너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반장리)를 오가고 있다.

## ■ 나루와 생활

수청1리 큰청탄마을의 청탄나루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고 조그만 컨테이너 건물에 '수청호 선착장'이란 표지판이 걸려 있다. 청탄나루는 경기도권 남한강 일대에서 유일하게 나룻배가 운항되고 있는 곳이다. 나룻배는 '수청호'란 이름의 동력선으로 강 건너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반장리)의 도곡나루를 오가고 있다. 강 건너 반장리에서는 청탄마을로 이 배를 타고 성묘하러 오기도 한다. 강이 얼어붙는 겨울철에는 수청호의 운항을 중지한다. 배의 운임은 1000원인데 남종면 사람들은 무료로 탄다. 이 배는 도와 시에서 관리·운영한다.

청탄나루는 과거에 큰 나루였다고 한다. 청탄마을 사람들은 양평장이나 양수리장을 보러갈 때라든지 서울로 갈 때 나룻배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장을 보러 갈 때는 청탄나루에서 나룻배를 타고 반장리에 가서 건너 버스를 이용하였다. 또 서울에 갈 때도 배를 타고 반장리로 가서 걸어서 국수리로 이동하여 기차를 타고 갔다. 또한 양평, 옥천 사람들이 서울로 갈 때 청탄으로 배를 타고 와서 나분리고개를

거쳐 귀여리로 빠져서 소내를 지나 배알미, 개내(신장리)를 거쳐 광나루로 갔다. 서울에서 아침에 떠나면 오후 4시경 서울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예전에 장삿배는 개목마을 앞에 있는 대하섬에 배를 대고 숯, 장작, 화목 등을 실어 서울로 내려갔다. 땀나무는 강하면 항금리, 동오리, 성덕리, 운심리 등지에서 싣고 개목마을에 와서 장마 때 실었는데 이 나무는 대개 독섬에 가서 팔았다.

영월에서는 떼배와 거룻배에 숯을 싣고 서울로 내려가다가 청탄나루에서 쉬어갔다. 배가 내려오면 술배가 가서 배를 붙이고 술과 음식을 팔았다. 나루 부근에는 주막이 3집이나 있었다.

마포에서는 소금을 싣고 영월로 가서 팔을 교환하는 '바구미'를 하였다. 영월에서 장마질 때까지 몇 달 동안 기다렸다가 바꾼 팔은 독섬이나 마포에 가서 팔았다고 한다.

청탄나루와 관련된 일화로 이 마을의 토성 중의 하나인 함양여씨 집안의 몽양 여운형이 청탄나룻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되어 사람을 구해낸 일화가 《여운형 연설집》(삼천리, 1936.1 부록) 중 <상승군평양 축구단(常勝軍平壤蹴球團)을 천진원정(天津遠征)에 보내면서 - 체육(體育)과 경기(競技)에 전한다.

내가 한번 청탄나루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되었을 때 나는 배운 수영으로 의복을 벗어버리고 뛰어들어가 세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내가 수영술이 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좋다하고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어 그랬지 만일 자기가 살겠다고 나를 붙잡았으면 나도 죽고 그도 죽었을 것입니다.”

## ■ 어로작업

고기잡이로는 줄낚이 있는데 주로 건너편 반쟁이(도곡리) 사람들이 많이 했다. 줄낚시는 낚시대 없이 낚싯줄 끝에 낚싯바늘을 맨 채로 고기를 낚는 방법으로 낚시에 미끼를 꿰어 물 밑에 던져두거나 미끼 없이 낚아채기도 한다. 어종은 쏘가리, 눈치, 잉어, 메기 등이 있고 뱀장어는 드물게 나온다. 눈치는 물이 맑은 데서만 산다.

## ■ 장시

큰청탄마을에서는 예전에는 주로 양평장과 양수리장을 보았다. 대개 양수리장은 교통이 편하고 양평장은 규모가 컸다. 때로는 백중 때 분원장에 가서 씨름판을 구경하기도 했고, 국수리장에는 떡방아간이 있어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이용하기도 했다.

양평장은 8일과 15일 양수리장은 1일과 6일에 장이 선다. 장을 보러 갈 때는 청탄나루에서 배를 타고 강 건너 반장리(도곡리)로 가서 걸거나 버스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요즘은 교통이 좋아져 주로 퇴촌장(5일, 10일)을 본다.

## ■ 민간신앙

### • 산신제

청탄마을에서는 격년으로 산신제를 봄이나 가을에 택일해서 지낸다. 주로 봄 2월경에 많이 지내며, 해압산 줄기 산의 중턱에 있는 산제당에서 지낸다. 제당은 별도의 건물 없이 자연 제당으로 산신나무만이 있다. 산신나무는 오래된 소나무이다. 예전에는 현재의 소나무보다 더 굵은 소나무가 있었는데 노인들이 6·25 때 묻어 놓은 지뢰를 터트리려고 산에 불을 놓아 타버리고 말았다. 다행히 그 곁에 있던 나무가 자라 현재의 산신나무가 된 것이다.

산신제를 지내는 것은 동네가 평안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데에 목적이 있다. 만일 산신제를 지내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등 동네 우환이 생기기 때문이다.

먼저 산신제를 지내기 전에 제관은 부정이 없는 집에서 생기복덕을 가려 3명을 뽑는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부부 간에 동품(동침)도 안하고 오줌을 눌 때도 거기에 손을 안 대고 막대기로 부추기는 등 금기를 지켰다.

제사비용은 이장이 맡아서 동네돈으로 하되 모자란 것은 각 집에서 추렴한다. 제물은 예전에는 돼지를 잡아서 지냈는데 점백이는 안 쓰고 새까만 암돼지만 썼다. 현재는 돼지머리를 사서 쓴다.

산신제를 지내는 시간은 저녁 7~8시경으로 제관 3명과 일꾼을 합해 모두 5~6명이 제물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간다. 제물은 돼지머리와 삼실과, 약주 등으로 간단히 차려 제를 지낸다.

산신제를 지낸 뒤에는 제물을 동네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다. 고기를 꼬챙이에 꿰 꿬미를 각 집에 돌리고 외지에서 들어온 장사꾼에게도 한 꿬미를 주었다.

## ■ 세시풍속

### 1월

#### [설날]

• 떡국차레·차레상 : 설날 아침에 차레상에 떡국을 올리고 차레를 지내는데 이를 '떡국차레'라고 한다. 차레는 보통 아침 8시 전후하여 지낸다. 상차림은 집안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메(흰밥)는 놓지 않는다. 차레음식은 떡국을 비롯하여 북어포, 식혜, 조기, 소고기적이나 돼지고기적, 북어적, 동태전, 갈랍, 고기전, 나물(고사리·숙주·무·시금치·도라지), 과일(대추·밤·배·감·사과), 옥춘(동그랗게 만든 빨간 과

자), 산자, 다식, 약과 등으로 구성된다. 상차림은 좌포우혜, 동두서미, 조율시이 등의 예법을 따른다.

떡국에 만두는 집에 따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한다. 차례상에 올리지 않는 음식으로는 콩나물, 장어·메기 등과 같은 비늘 없는 생선, 복숭아와 같은 털 난 과일 등이 있다.

떡국차례를 지낸 다음 세배를 하고 차례상으로 아침식사를 한 뒤 성묘를 간다. 성묘를 다녀온 뒤 한가해지면 옷놀이나 화투놀이를 한다.

#### [정초]

- 고사반 : 동네마다 농악이 있어 '농사천하지대본'이라 쓴 깃대를 들고 농악대들이 정초부터 보름까지 집집마다 다니며 고사반을 쳐준다. 농악대가 방문하면 있는 집에서는 쌀 한 말을 내놓는다. 앞마당 한복판에 고사반 상을 차려놓는데, 떡시루를 시루째 얹혀놓고 쌀 한 말을 수북히 다라에 담아놓고 그 위에 실타래를 드린다. 상쇄쟁이가 팽과리를 치면서 축원덕담을 하는데 이를 고사반 드린다고 한다. 고사반은 동네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이다.

- 남의집 안가기 : 정초에 상주가 남의 집에 가면 좋지 않다고 한다. 지금도 지키는 사람이 있다.

#### [14일]

- 아홉번 행동하기 : 보름 전날 새끼 아홉 발을 꼬아야 하고, 땀나무 아홉 짐을 하고 밥 아홉 번을 먹어야 좋다고 한다.

- 오횃밥 : 오횃밥은 잠곡밥으로 이날 오횃밥을 해서 이웃 간에 나눠 먹는다.

- 잠안자기 : 14일날 저녁 너무 일찍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하여 일찍 자지 못하게 하였다. 일찍 자는 아이들에게는 노인들이 아이들의 눈썹에 밀가루를 하얗게 발라놓고 눈썹이 세었다고 놀리기도 하였다.

- 더위팔기 : 이날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아무개!" 하고 부르면 "내 더위 사가!" 하고 더위를 팔았다. 그러면 더위를 판 사람은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 신발감추기 : 14일날 밤에 신발을 밖에 벗어 놓으면 귀신이 집어간다고 하여 방에 들여 놓고 잔다.

#### [대보름]

- 뱃고사 : 보름날 아침에 배의 이물에서 뱃고사를 지낸다. 북어와 술로 간단히 제물

을 차려놓고 사고 없고 잘 되게 해 달라고 빌고 절을 한다.

- 적사대회 : 큰청탄마을에서는 대보름날 청탄나무 느티나무 있는 데서 옷놀이를 한다. 옷은 굵은 장작옷을 사용하며, 놀이 방법은 1m 정도의 높이에 줄을 매어 그 줄을 넘기는 것이다. 그리고 바닥에 금을 그어놓고 금 밖으로 나가면 낙판으로 판정한다. 이긴 사람에게는 상품으로 삼·괘이 등 농기구를 주었다.

- 달보고 소원빌기 : 익새풀을 베어다가 화를 만들어 나이 수만큼 지푸라기로 묶어서 저녁에 달이 뜨면 불을 붙이고 소원을 빈다.

달은 남보다 먼저 보아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저녁을 일찍 먹고 산에 올라간다. 달이 잘 보이는 해업산은 높아서 못 가고 마을 뒷동산에 올라가 달이 뜨기를 기다린다. “달이 뜨면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 달라”,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크고 공부 잘 하게 해 달라”, 결혼한 부부는 “아들 낳게 해 달라”는 등 각자의 소원을 빈다.

- 쥐불놀이 : 달이 뜬 후 깡통에 구멍을 뚫어 관솔이나 나무대기를 넣고 불을 붙여 돌리는 것을 쥐불놀이라 한다. 원래는 논두렁 밭두렁에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 불을 붙여 태우는 것을 쥐불이라 하였는데 나중에 깡통에 불을 붙여 돌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 2월

[2월 초하룻날]

- 나이떡 해먹기 : 2월 초하룻날은 나이떡을 해먹는 날이며, 이날은 명절날이라 일을 하지 않는다. 나이떡은 손가락으로 식구들 나이 수만큼 쌀을 떠서 송편을 만들어 먹었다. 송편 속으로는 주로 팥과 콩을 넣었다.

[월내]

- 산신제 : 음력 2, 3월에 날을 받아 산신제를 지낸다. 산신제는 2년에 한 번씩 지는데 대개 저녁 7, 8시경에 산신나무 아래에서 제를 지낸다. 산신나무는 오래된 굵은 소나무이다. 제물로는 과거에 돼지 한 마리를 썼으나 현재는 돼지머리를 쓴다. 제관은 3명을 선출한다. 선출된 제관은 산신제 때까지 엄격한 금기를 지킨다. 산신제가 끝난 뒤 고기는 마을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다.

## 3월

[한식]

- 성묘 : 한식에는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를 하고 사초를 한다. 산소에 과일, 포, 술(주·과·포)을 차려놓고 절을 한 다음 잡초를 뽑는다. 산소 개수나 보수 등 산소 단장

을 하기도 한다.

[월내]

• 진달래술 담그기 : 3월에 진달래꽃이 피면 꽃을 따다가 술을 담가 먹는다. 진달래 술은 약술로 쓰인다. 이곳에는 진달래꽃이 많아 아낙네들이 진달래꽃을 따다가 경동 시장에 팔기도 한다.

4월

[초파일]

• 절가기 :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절에 간다.

5월

[단오]

• 창포에 머리감기 : 단옷날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는데 현재는 논두렁에 창포가 없다.  
• 그네뛰기 : 단옷날에는 선착장 사정터 느티나무에 그네를 매고 뛰었다. 이날 씨름은 하지 않는다.  
• 활쏘기 : 단옷날 큰청탄마을에서는 청탄나루 선착장 사정터에서 활쏘기를 하였다. 시험에 앞서 먼저 '고사반나무'라 불리는 사정터 느티나무(6·25 전에 없어짐.)에 떡시루를 놓고 고사를 지냈다. 활쏘기는 느티나무 있는 데서 표적으로 돛을 걸어 놓고 돛에는 둥그렇게 과녁을 표시하였다. 큰청탄마을의 활쏘기 시험은 내기 활쏘기로 이때 기생들도 왔으며 명중하면 "지화자!"를 부르고 노래하였다. 활쏘기에서 우수한 사람에게는 상품으로 광목 등을 주었다. 큰청마을의 활쏘기에는 인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다고 한다.

6월

6월에는 특별한 행사나 풍습이 없다고 한다.

7월

[칠석]

• 부침개와 마구설기시루떡 먹기 : 칠석날에는 각 집에서 부침개와 마구설기시루떡을 해서 이웃 간에 나누어 먹는다. 마구설기떡은 콩·팥·대추·감 등을 한데 넣고 만든 설기떡을 말한다.

## [백중]

• 백중장가기 : 7월 15일 백중에는 양평장이나 분원장의 백중장을 구경하러 간다. 백중장에서는 농악을 하고 씨름판을 크게 벌리고 놀았다. 분원장까지는 걸어서 3~4시간이 걸린다.

## 8월

### [추석]

• 송편차레 : 추석에는 햇곡식으로 송편을 만들어 차레상에 올리고 차레를 지내는데 이를 송편차레라 한다. 차레상에는 송편만 놓기도 하지만 집에 따라서는 메를 같이 놓기도 한다. 송편은 대개 자그맣게 만들며 그 속에는 팥, 콩, 고구마, 밤, 참깨 등을 넣는다.

과거에는 추석 무렵 재래종 올벼인 자체벼를 훑어다가 디딜방아에 찌서 밥을 짓고 송편을 만들었다. 막걸리도 1970년대 초까지 집집마다 담갔다.

• 성묘 : 차레를 지낸 뒤 아침식사가 끝나면 산소에 성묘를 간다.

## 9월

### [중구]

• 구절초뜯기 : 음력 9월 9일 중구에는 구절초를 뜯는다. 9월 9일 뜯는 구절초래야 특히 약효가 좋다고 한다.

• 국화주 : 중구에는 들국화꽃을 따서 국화주를 담가 먹는다.

## 10월

• 상달 고사 : 10월 상달에는 집집마다 날을 받아 떡시루를 해서 고사를 지낸다. 팔시루떡은 시루째 대청마루에 놓았다가 시루를 엮어 떡을 잘라서 안방 제석, 부엌의 조왕, 뒤곶의 터주에 갖다 놓는다.

## 11월

### [동지]

• 동지팔죽 : 동짓날에는 팔죽을 쑤어먹는데, 동지가 초승에 들면 '애동지라 하여 팔죽을 쑤어 먹지 않고 주로 노동지에 팔죽을 먹는다.

## ■ 민속놀이

### • 활쏘기

청탄나루 선착장이 있는 곳에 느티나무 고목이 있는데 이곳이 사정터이다. 단옷날 느티나무 있는 데서 표적으로 돛을 걸어놓고 활쏘기를 하였다. 돛에는 둥그렇게 과녁을 표시하였다.

활쏘기 시합에 앞서 먼저 사정터 느티나무 옆에 떡시루를 놓고 고사를 지낸 다음 활쏘기를 하였다. 이 나무를 '고사반 나무' 라고 하였는데 이 나무는 6·25 전에 없어졌다.

큰청탄마을의 활쏘기 시합은 내기 활쏘기로 이때 기생들도 왔으며 명중하면 '지화자' 를 부르고 노래하였다. 활쏘기에서 우수한 사람에게는 상품으로 광목 등을 주었다.

단옷날 활쏘기 시합에는 청탄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이 마을 사람 중에는 활쏘기 시합 때 화살을 주으러 갔다가 화살을 맞아 눈이 먼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큰청탄마을의 활쏘기는 강변에서 돛에 과녁을 표시해 걸어놓고 활을 쏘는 놀이로 강마을 민속에서 보기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 ■ 제보자

- 송삼순 (여, 85세, 양평군 양서면 대심2리 47번지, 19세 때 양평군 용문면에서 양서면으로 출가함)
- 최옥현 (남, 69세, 양서면 대심2리, 부친이 뱃일을 하였음. 이 마을에서 옛집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은 최옥현씨 집뿐임.)
- 장순란 (여, 86세, 대심2리, 20세 때 양서면으로 시집옴.)
- 김종심 (여, 78, 여주군 금사면 이포1리)
- 박달순 (여, 78, 여주군 금사면 이포1리 185)
- 장태봉 (남, 1941년생, 여주군 금사면 이포1리 185, 4대째 거주. 이포 토박이로 1989년 이포대교가 생기기 전까지 약 10년간 도선업을 하였음.)
- 장석환 (남, 73, 금사면 이포리, 장태봉의 부친, 삼신당 당주, 작고)
- 최준락 (남, 67, 여주군 능서면 내양1리 54, 노인회 총무, 5대째 거주)
- 박순애 (여, 64, 여주군 능서면 내양1리 53, 최준락의 아내, 문막에서 시집옴.)
- 이웅 (남, 67, 여주군 능서면 내양1리 53, 농업, 2대째, 거주)
- 박광식 (남, 60, 여주읍 천송리 289-7, 식당업, 4대째 거주)
- 박상옥 (남, 71, 1939년생,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 17, 농업, 2대째 거주)
- 황기분 (여, 84,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 114, 46년 전 굴암리에서 시집옴. 남편은 고탁준옹으로 고사반에 능했음)

- 이규현 (남, 64,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702-2, 3대째 거주)
- 정올향 (남, 84,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 23-21, 8대째 거주, 6·25 전 뱃일에 종사)
- 홍성남 (남, 73,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 구항동, 12대조 묘가 수청2리에 있다고 함.)

- 조사시기 : 2009. 8~12월